

문화
서재

2025 03 VOL. 217

문화서재



〈코헤이 야마다: 경계〉

올해 동시대 미술을 주도하는 국내의 작가의 개인전을 준비한 아라리오갤러리는 오는 봄, 1997년생 일본 작가 야마다 코헤이의 작품을 선보인다. 현대 도시와 자연의 중간 지대를 은유하는 추상회화를 선보여온 작가는 기하학적 색면의 중첩과 대비를 통해 특유의 깊은 색감과 밀도, 사색의 정서를 드러낸다. 물감의 긴밀한 층위 사이에 놓인 경계에서 서로 다른 기억과 시간, 공간을 연결 짓는 '접경지대'를 발견한다. 4월 12일까지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 02.541.5701

1

서리플 고음악 시리즈 〈에스테르하치 궁전의 밤〉

'고음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서초문화재단 반포심산아트홀에 올해도 바로크음악이 울려 퍼진다. 그 시작을 알리는 3월 공연은 이름만으로도 생소한 포르테피아노·트라베르소(가로로 부는 피리)·바로크바이올린·바로크 첼로 등 악기로 구성된다. 시대를 초월한 선율과 섬세한 울림으로 관객에게 새롭게 살아 숨 쉬는 고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3월 12일 오후 7시 30분 | 반포심산아트홀 | 02.3477.2805

2



야마다 코헤이, 〈무제〉, 2024, 캔버스에 오일, 162.2×130.3cm

3



와인 페어링 콘서트 〈와인et멜로디〉

동대문문화재단은 와인 페어링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지난해 인기를 끈 재즈는 물론, 우리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동시대 한국음악까지 들려주고자 한다. 3월에는 TV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을 통해 얼굴을 알린 방송인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린데만의 콘서트가 열린다. 이어 4월에는 '코리안 집시'를 내세운 퓨전 국악밴드 삼자루, 6월에는 초여름을 담은 재즈 보컬 김유진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3월 28일 오후 7시 30분 | 선농단역사문화관 | 02.3291.5505

4



음악동인고물×고블린파티 〈꼭두각시〉

2021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으로 선정돼 처음 발표된 이래 꾸준히 버전을 발전시켜온 음악동인고물과 고블린파티의 실험극 〈꼭두각시〉가 재공연된다. 춤이기도, 노래이기도, 놀이이기도 한 꼭두각시의 중의성을 토대로 무용수와 연주자가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작품. 전통음악을 연주하고 연구하는 음악동인고물과 한국의 도깨비처럼 재주 넘치는 이들이 모인 고블린파티의 현연이 돋보인다. 3월 8일과 9일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070.8018.9225

©무신중

〈심포니 오브 뮤지컬〉

뮤지컬 애호가라면 놓칠 수 없는 공연. 디바 유주현과 〈레베카〉, 〈엘리자벳〉 등 작품에서 활약한 이지혜, TV 프로그램 〈팬텀싱어 3〉에서 그룹 '레떼아모르'로 이름을 알린 뒤 〈마타하리〉에 아르망 역으로 출연한 김성식 등 배우가 무대에 올라 여러 뮤지컬 작품의 하이라이트 넘버를 들려준다. 3월 29일 오후 5시 |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 02.440.0500

5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상한 차일드 예술클럽'

종로에 위치한 아이들극장은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상한 차일드 예술클럽'을 진행한다. 제61회 동아연극상 새겨냄연극상을 수상한 아이들극장 제작 공연 〈이상한어린이연극-오감도〉와 연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연극·음악·미술·무용 등 교육과 동시 강연, 투어로 구성된다. 더불어 〈이상한어린이연극-오감도〉 공연이 궁금하다면 오는 4월 재공연 무대를 만날 수 있다.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 아이들극장 외 | 02.2088.4237



6



8



2024 타이틀 매치 홍이현숙 vs. 염지혜 <돌과 밤>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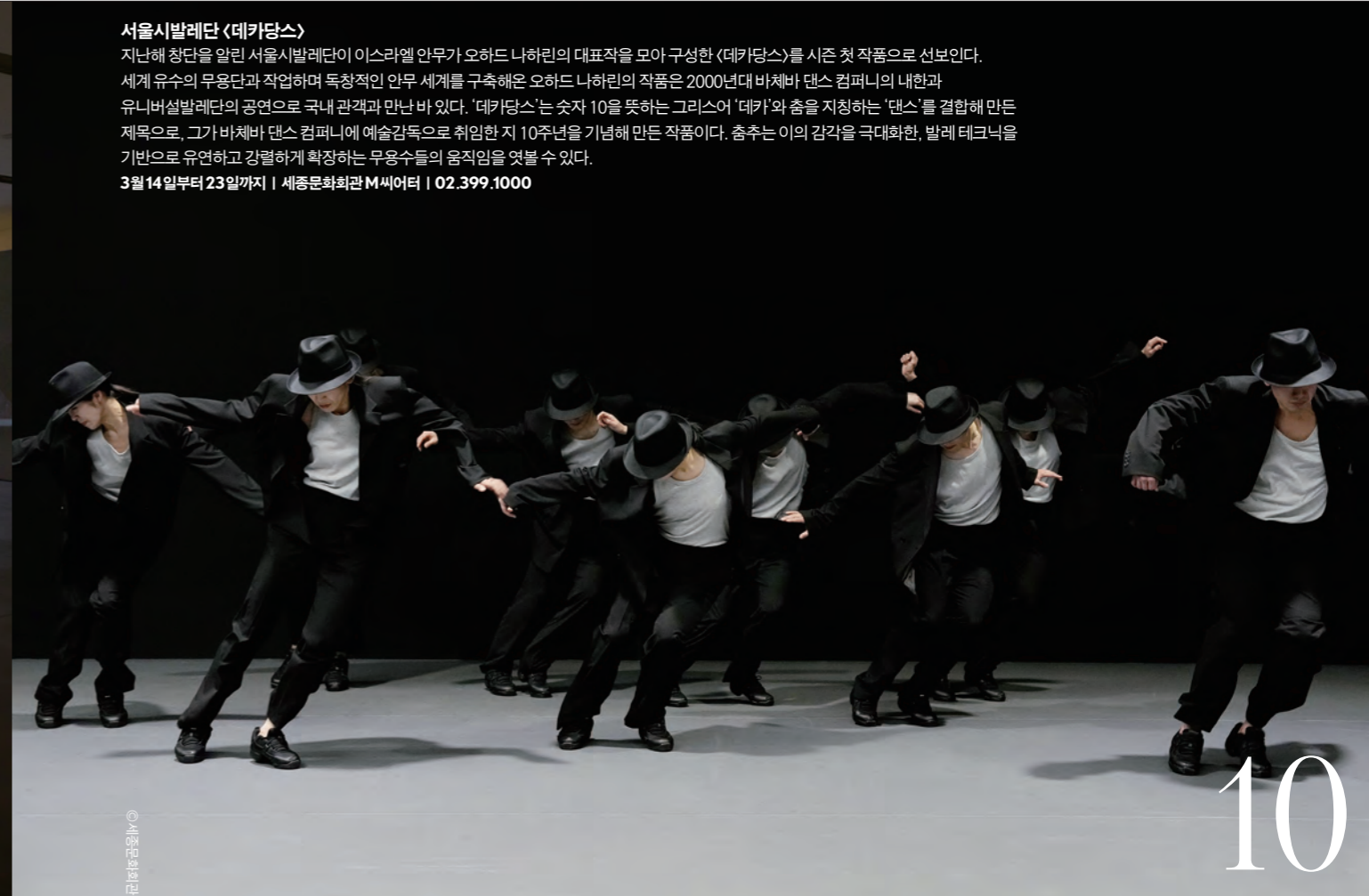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영무새의 합창대회>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기획공연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영무새의 합창대회>를 선보인다. '우리 아이 첫 클래식'으로 소개되는 이 공연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설이 있는 음악과 악기 체험을 통해 음악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며, 클래식 음악과 친해지는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다. 공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영등포문화재단 누리집(ydpcf.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3월 15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02.2629.2237

7

타이틀 매치 홍이현숙 vs. 염지혜 <돌과 밤>
 동시대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홍이현숙과 염지혜 작가의 타이틀 매치전이 열린다. 10년 만에 만나는 여성 작가의 2인전으로, 기후 이변과 전쟁 등 세계가 처한 위기를 통찰하는 신작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전시 제목의 '돌'은 신체적 감각이자 다른 존재와 내가 연결돼 있다는 물질적 감각, '밤'은 두 작가가 각자 집중하는 화두이자 재난 상황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으니, 서울시립미술관 누리집에서 살펴볼 것.
3월 30일까지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 02.2124.5248~9

서울시발레단 <데카당스>

지난해 창단을 알린 서울시발레단이 이스라엘 안무가 오하드 나하린의 대표작을 모아 구성한 <데카당스>를 시즌 첫 작품으로 선보인다. 세계 유수의 무용단과 작업하며 독창적인 안무 세계를 구축해온 오하드 나하린의 작품은 2000년대 바체바 댄스 컴퍼니의 내한과 유니버설발레단의 공연으로 국내 관객과 만난 바 있다. '데카당스'는 숫자 10을 뜻하는 그리스어 '데카'와 춤을 지칭하는 '댄스'를 결합해 만든 제목으로, 그가 바체바 댄스 컴퍼니에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지 10주년을 기념해 만든 작품이다. 춤추는 이의 감각을 극대화한, 발레 테크닉을 기반으로 유연하고 강렬하게 확장하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엿볼 수 있다.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02.399.1000



©세종문화회관

10

국립창극단 <보허자: 허공을 걷는 자>

조선 세조와 그의 권력욕으로 인해 희생된 셋째 아들 안평대군을 소재로 한 창작극 <보허자: 허공을 걷는 자>가 막을 올린다. 고려 시대 송나라로부터 전래해 고려와 조선의 궁중음악으로 수용된 악곡의 이름인 '보허자'는 듣는 이의 무병장수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품은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동경하나 그와 다르게 현실에 얽매어 발 디딜 곳 없이 허공을 거니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고자 '보허자'를 제목에 차용했다. 우리 시대의 극작가 배삼식이 극본을 맡았고, <변강쇠 점 찍고 웅녀>, <귀도> 등 국립창극단 작품에서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한승석이 작창과 작곡·음악감독으로 참여한다. 동이연극상·두산연간예술상을 받은 젊은 연출가 김정이 "현실 어딘가에 있을 희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3월 13일부터 20일까지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02.2280.4114



©국립극단

9

강북구청 개청30주년 기념전시

지나온 30
앞으로 30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진달래홀 갤러리

2025.2.28 FRI - 3.14 FRI
10:00 - 17:00

주최 주관 강북구청
진행 GALLERY TWOONES

강북구청 개청 30주년 기념 <지나온 30년, 앞으로 30년>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진달래홀 갤러리에서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강북구청 개청 30주년 기념 전시(지나온 30년, 앞으로 30년)를 개최한다. 강북구의 추억 가득한 과거와 희망찬 미래를 엿보는 특별한 주민 참여형 전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강북문화재단 누리집(gb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14일까지 |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진달래홀 갤러리 | 02.994.8501

11

르네 아콥스와 B'Rock 오케스트라의 헨델 프로젝트
 예술의전당은 '월드스타 시리즈'의 일환으로 고음악의 명장 르네 아콥스를 한국 무대에 초청한다. 시대악기 연주를 보여줄 B'Rock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임선혜·카테리나 카스페르, 카운터테너 폴 피기에, 테너 토마스 워커 등 성악가들이 만나 웅장한 바로크음악의 밤을 선사한다. 헨델의 첫 오라토리오 작품 '시간과 깨달음의 승리' 등 레퍼토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3월 29일 오후 5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1668.1352



©Philippe Maarsas

12



‘도서관 핫&쿨’ 캠페인
 따뜻해지는 계절, 서울시가 관내 공공도서관 122개소의 야간 연장 운영을 시작한다. 오후 6시까지 개방하던 도서관을 10시까지 연장 운영해 직장인과 학생들의 독서 기회를 확대하고, 개별 가정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로써 ‘시민의 안전한 심터’이자 ‘열린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더 많이 찾도록 제안한다. 더불어 ‘도서관 핫&쿨’ 캠페인을 통해 도서관 방문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이들이 편안하게 독서 문화를 즐기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근처 도서관에 문의해보자.



성동 필름 페스타 ‘세계 영화 상영회’
 스마트문화도시 성동구는 매년 성동 필름 페스타를 열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세계 영화 상영회를 마련한다. 스페인·영국·헝가리·이탈리아 등 주한 해외문화원과 협력해 각국의 우수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것. 3월 26일에는 성수아트홀에서 파블로 베르헤르 감독의 스페인 영화 <로봇 드림>을 만날 수 있으며, 상영 후에는 시네 토크가 펼쳐진다.
 3월 26일 오후 7시
 성수아트홀
 02.2204.7526

13 14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
 현대미술 역사에서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인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를 비롯한 동시대 거장 21명의 원작을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다. 뉴욕 미술계를 주도한 이들의 작품 36점을 통해 예술적 영감을 느껴보자. 옛 뉴욕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실감형 미디어아트 체험존도 마련돼 흥미를 더한다.
 7월 12일까지 |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아트뮤지엄 | 02.2289.3428



15



〈올해의 작가상 2024〉
 2012년 시작한 이래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미술상으로 자리매김한 ‘올해의 작가상’은 전도유망한 중견 작가의 전시를 지원하고 시상해 한국 현대미술의 저변을 넓히고, 해외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왔다. 지난 10주년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제도를 개선해 돌아온 올해는 윤지영·권하윤·양정욱·제인 진카이젠을 후원작가로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2월, 네 작가 가운데 최종 수상자로 양정욱을 발표했다. 전시가 끝나기 전, 움직이는 조각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로 자신이 바라는 삶의 모습을 전하는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3월 23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02.3701.9500

〈올해의 작가상 2024〉 양정욱 전시 전경 © 국립현대미술관

16

SCENE

전문 연극인의 창작 허브, 서울연극창작센터

10 탐색
 공연 제작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연극창작센터 탐방기

22 시작
 무한의 언어로 내일을 비추다 서울연극창작센터 개관 페스티벌

25 만남
 새 공간을 활짝 열며 서울연극창작센터에 바란다

27 대화
 빈 공간을 각기 달리 채워나가며 서울연극창작센터를 만든 사람들



COVER STORY
 새로 인사드립니다, 서울연극창작센터
 오는 3월 20일 정식 개관을 앞둔 서울연극창작센터를 둘러보며 연극인을 위한 기반과 연극인에 의해 펼쳐질 모든 순간을 기대해본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 다음 장에서 계속.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송형중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 편집 안미영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5년 3월 4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FOCUS

32 예술가의 진심
 정세랑, 현실을 뛰어넘고 상상의 한계를 돌파하는

38 예술인 아카이브
 박종이

40 예술인 아카이브
 박상미

42 페이퍼로그
 인사팀 김다영
 예술이 우리 삶에 줄 수 있는 것

44 인사이트
 기업과 재단, 함께 발맞춰 걷다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46 인사이트
 20세부터 23세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서울청년문화페스트

47 인사이트
 한류를 주도할 서울 대표 작품 제3회 서울예술상

48 트렌드
 관객이 공연의 일부가 된다면? 감상을 넘어선 공연 경험의 확장

50 해외는 지금
 도심 속 휴식, 긴자소니파크가 그리는 새로운 풍경

COLUMN

54 명곡의 뒤안길
 브람스와 말러, 호숫가의 두 남자

56 낯말은 새가 듣고 낯말은 시가 읊는다
 ‘쪽’에서 ‘꽃’으로—덜 익었기에 더 익을 수 있다는 희망

58 국악 칼럼이라기엔 쑥스럽지만
 다 이해하면 오히려 재미없는, 국악

60 멈추면 보이는 것들
 국립극장을 지키는 자유로운 위엄

62 컨트리뷰터

ASSOCIATED

전문 연극인의 창작 허브, 서울연극창작센터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빠져나오면
반겨주는 너른 적벽돌 건물.
오는 3월 20일 정식 개관을
앞둔 서울연극창작센터를
둘러보며 연극인을 위한
여러 기반과 연극인에
의해 펼쳐질 모든 순간을
기대해본다.



공연 제작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연극창작센터 탐방기

붉은 벽돌에 둘러싸인 6층 규모의 건물. 연극이 태동해 무대에 올려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품고 있는 이곳의 세부를 들여다봤다.



1층 로비&서울씨어터 제로
 서울연극창작센터가 방문객을 맞이하는 공간이자, 서울씨어터 제로의 로비. 서울씨어터 제로는 150석 규모의 수납식 객석을 갖춘 연극 전용 블랙박스 극장입니다. 고정된 객석이 없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ZERO 극장 공간이 연극적 실험과 도전을 통해 자유롭게 채워나가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 됨을 의미합니다. 객석 수납을 통해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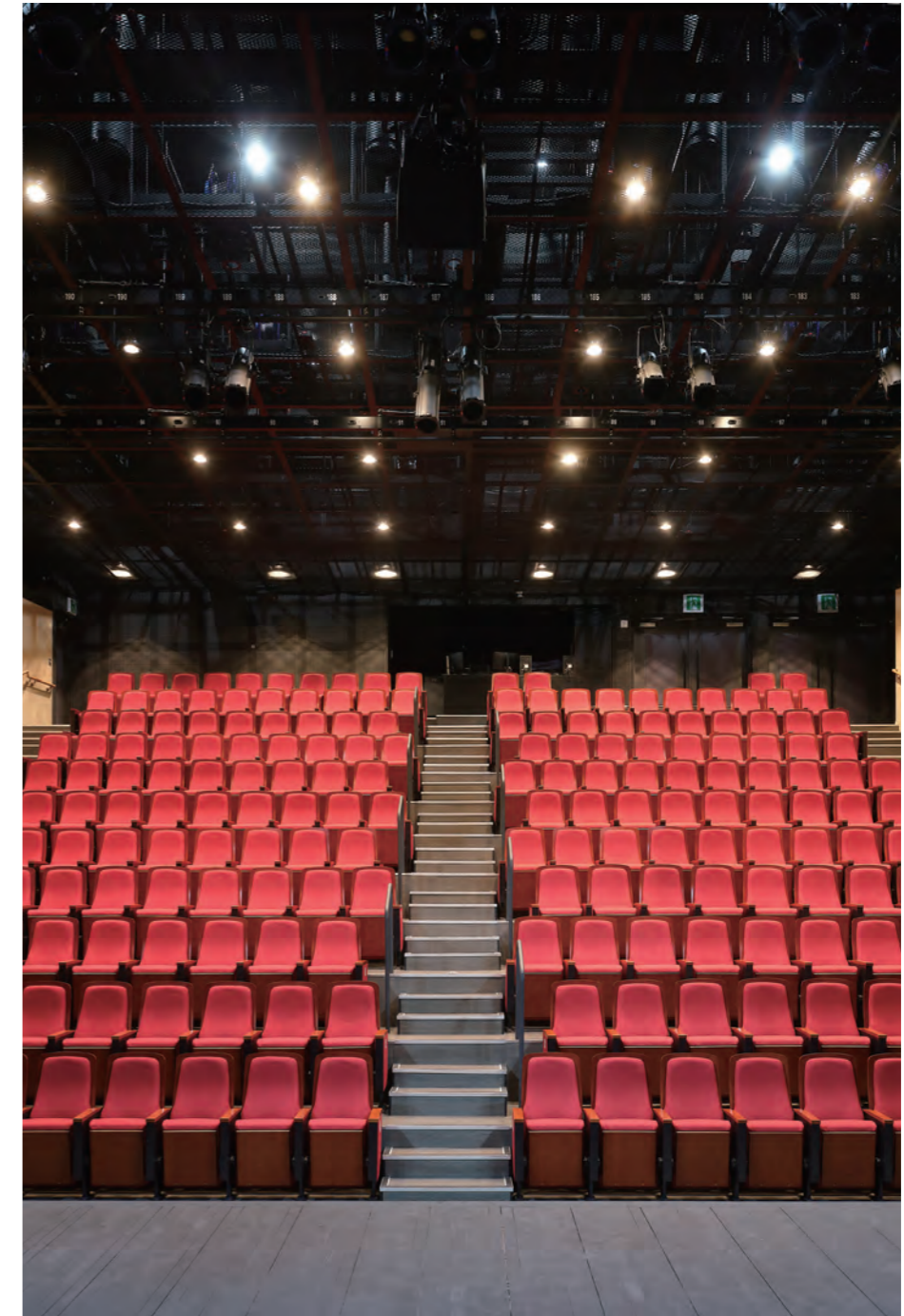
연극인라운지

2층과 3층에 걸쳐 조성된 연극인라운지는 공연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예술인과 시민의 열린 문화 공간입니다. 예술 전문 서적이 갖춰져 있으며, 한편에 자리한 리스테리어 서울 쇼룸에서는 전시된 공연 의상·소품을 둘러보며 예술 체험이 가능합니다.



연극인오피스

3층 연극인오피스는 연극 분야 예술인과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협업·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 공간입니다. 전체 12개의 입주사무실(장기 입주 7실, 단기 입주 5실)과 회의실, OA존으로 구성되며 정기 공모를 통해 입주단체를 선정합니다. 현재 9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모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씨어터 202

202석의 객석을 갖춘 연극 전용 프로시니엄 극장, 서울씨어터 202. 비어 있는 극장 공간에 서로 다른 창작진과 관객이 모여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극장 형태로, 관객은 커다란 아치 틀을 통해 무대를 만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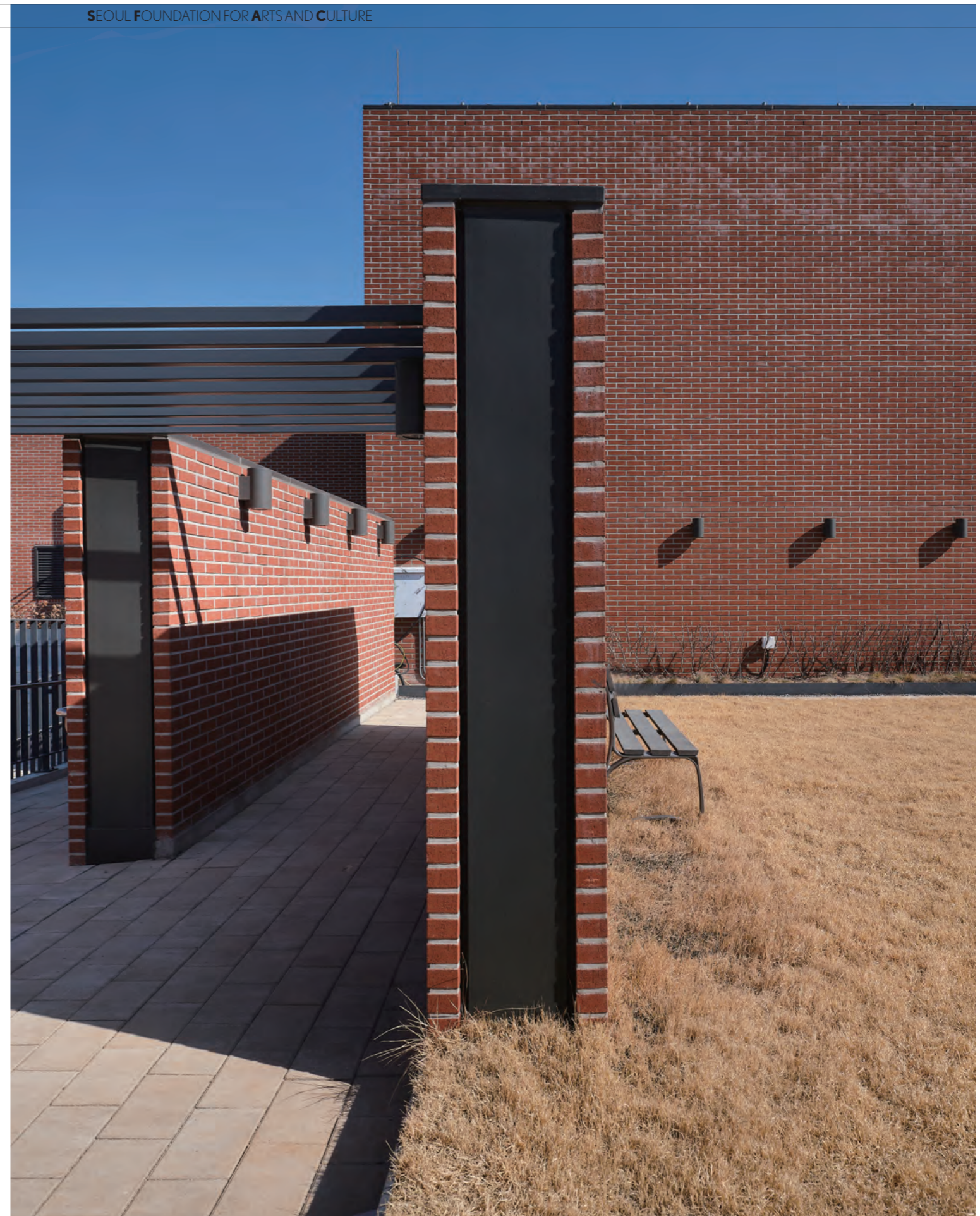
5층 로비

서울씨어터202 로비이자 서울연극작가센터의 중앙 계단 통로와 옥상공원을 연결하는 지점에 자리한 공간입니다.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여러 공연 정보를 제공하며, 공연 시간 전후로 머무를 수 있는 편의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옥상공원

서울연극작가센터 6층(옥상)에 마련된 공원입니다. 도심 속 녹지를 즐기는 휴식 공간은 때때로 시민이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는 문화 향유 공간이 됩니다.





리스테이지서울

서울연극장작센터 6층에는 공연물품의 대여와 반납을 위한 리스테이지 서울 창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리스테이지 서울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연에 필요한 의상과 소품, 대도구 등 물품을 편리하게 공유하고 재사용하는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입니다. 이곳 의상·소품 창고에서는 5천여 점의 물품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한의 언어로 내일을 비추다 서울연극창작센터 개관 페스티벌

문이 열리고, 연극의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이곳에서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열리는 개관 페스티벌은 연극이 걸어갈 길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가오는 3월 20일, 서울연극창작센터가 드디어 문을 연다. 성북구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 서울연극창작센터는 기존 대학로 중심의 연극 생태계를 확장해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대학로극장 퀴드)-서울연극센터와 연결되는 공연예술벨트를 구현하는 새로운 연극 창작의 거점으로 자리잡고자 한다. 연극 제작의 초기 단계부터 공연까지 모든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연극인이 이 공간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실험하며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창작의 모든 순간을 담아내는 공간
서울연극창작센터의 핵심 공간으로는 블랙박스 극장 '서울씨어터 제로'와 프로시니엄 극장



'서울씨어터 202'가 있다. 정식 운영에 앞서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월과 2월 두 편의 시범공연을 올렸다. 이 극장은 3월부터 시작될 개관 페스티벌을 통해 비어 있는 공간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우는 연극 전용 극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 외에도 센터 내부에는 연극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휴식할 수 있는 '연극인라운지', 연극 분야 예술인과 단체가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다지고 협업·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유 사무실 '연극인오피스'가 마련돼 있다. 또한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트이지 서울',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연습실 및 프로젝트 룸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극 창작 활동을 폭넓게 지원한다. 특히 서울연극창작센터는 많은 연극인이 거주하는 성북구에 위치해 지역적 특색에 맞게 조성된 공간이기에 연극계의 큰 기대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센터 외부에는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계된, 건물 전체를 가로지르는 계단 통로와 엘리베이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간을 방문하는 누구나 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옥상공원과 야외마당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곳곳에서 상시로 야외 공연이 펼쳐져 시민이 예술을 편하게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

개관 페스티벌,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첫걸음
'무한의 언어로 내일을 비추다'를 주제로 한 개관 페스티벌은 연극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조명하며, 이를 통해 동시대의 삶을 투영한다. 또한 서울연극창작센터가 연극의 오늘과 내일을 잇는 공간으로 자리하도록 그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센터는 무한한 상상력과 실험 정신을 바탕으로 연극의 경계를 확장하며, 과거와 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3월 20일, <통속소설이 머 어때서?!>로 개관 페스티벌의 막이 오른다. 이 작품은 남성

← 극단 허땅세의 오브제극 <시간을 훔치는 사람> ©ACCF
→ 오프닝 공연으로 선보이는 음악극 <통속소설이 머 어때서?!> ©Aejin Kwoun



→ 페스티벌의 마지막 순서를 장식할 극단 코너스톤 <맹>

중심의 우리 문학계에서 '대중문학의 원조'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한 천재 여류 작가 김말봉의 대표작 세 편을 각색한 연극이다. 1930년대 멜로드라마 특유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음악극 요소와 코믹 요소를 결합해 감각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연극의 본질과 예술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예술적 예술>은 '공연 심의 쇼케이스'라는 독특한 형식을 가정한다. 극장에서 관객은 단순한 감상자가 아니라, 직접 심의위원이 돼 '연극'과 '예술'의 의미를 사유하게 된다. 오브제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한 개인의 삶을 조명한다. 섬세한 연극적 표현과 신선한 무대 연출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관객들에게 잊힌 기억을 되살려낼 것이다.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9명의 인물이 얽히고설키는 과정을 통해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다. '초초초현실적' 연출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품이다.

페스티벌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맹>은 현대판 맹진사택 경사 이야기다. 국악기를 비롯한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소리를 육화하며, 연극이 가진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매력을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한국 희곡사의 중요한 인물인 고#윤대성 작가의 작품을 조명하는 특별 주간도 마련된다. 그의 대표작을 다시 읽으며 그가 한국 연극사에 남긴 깊은 흔적과 메시지를 되새겨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극장에서의 공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예술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곳곳에서 진행되는 자유로운 형식의 프린지 공연, 연극인을 위한 신체 훈련 워크숍, 센터의 전 공간을 탐방하는 투어 프로그램 등 평일부터 주말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소식은 서울연극창작센터 인스타그램(@stcc_20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연극의 시대를 열다

서울연극창작센터는 단순히 공연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연극 창작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실험의 장이다.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열리는 개관 페스티벌은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닌 연극이 걸어갈 길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센터는 이제 이곳에서 탄생할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이를 함께 만들어갈 창작자와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센터의 문이 열리며 연극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이 실제로 펼쳐질 이곳에서,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이야기가 탄생하고, 관객과 창작자가 함께 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모습을 기대한다.

개관 페스티벌 이후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는 기존 대학로에서 진행하던 다양한 연극제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 연극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창작집단 오늘도 봄 <예술적 예술>

연극인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워크숍(서울연극센터 플레이업 아카데미 심화 과정)과 창작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좀 더 체계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 연극인에게 실질적인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이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이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연극인이 창작의 꿈을 실현할 플랫폼을 열고, 수많은 무대와 이야기를 탄생시킬 것이다. 이곳에서 펼쳐질 새로운 연극의 시대를 누구보다 먼저 경험해보기를 바란다.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시작될 무한한 이야기가 우리의 내일을 비출 것이니.

새 공간을 활짝 열며 서울연극창작센터에 바란다

연극인에 의한, 연극인을 위한 공간이 될 서울연극창작센터. 이곳을 누비고 누릴 연극인들에게 그 바람을 들어봤다.

공재민

서울연극창작센터 운영자문위원회, 개관식 감독

서울연극창작센터 운영자문위원회에 함께하면서 개관식 감독 또한 맡고 계십니다. 본인을 소개해주시다면, 대학로에서 배우이자 연출가로 연극 관련 모든 활동을 하는 연극인 공재민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에는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셨나요. 현장에서만 연극을 25년 넘게 하고 있다보니 불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연극 공간 운영자문위원으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 대학로 연극 현장의 소소한 의견까지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 과정에 함께하며 서울연극창작센터의 완성 과정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셨을 텐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연극 창작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서울연극창작센터 공간을 발의한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모든 예술인의 창작 과정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 연극인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센터 공간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곳을 꼽아주시고, 그 이유도 말씀해주세요. 3층에 있는 연극인오피스입니다. 연극 관련 협회·단체를 비롯해 여러 연극인이 함께 사무 공간과 회의실 등을 사용하면서 유대감을 쌓는 동시에 자유롭게 연극인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데요, 공간 이용을 시작한 연극인 사이에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학로는 140여 개 극장과 200여 개 넘는 극단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서울연극창작센터가 서울연극'창작지원'센터라는 개념을 가졌으면 합니다. 대학로를 중심으로 연극예술이 활성화했고, 그 주변인 한성대입구역 부근에서 연극 창작에 관한 씨앗을 발화시키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연극 창작의 가장 초기 단계부터 발표까지 진행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는 3월 개관식은 어떻게 이뤄질지 소개해주세요. '새로운 연극적 언어(말, 몸짓, 빛, 소리 등)로 세상을 투명하게 비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극의 가치와 다양성, 상상력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현시대에 맞게 이제부터는 우리도 미래 지향적인 연극을 추구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두고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연극창작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능적으로 건물이 다소 비효율적으로 완성된 데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될 테니 많은 연극인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연습실 공간과 연극인오피스 사무 공간을 좀 더 확장해 더 많은 연극인이 일상의 교류까지 펼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됐으면 합니다.

황태선

서울연극창작센터 개관 페스티벌 감독

처음 만날 독자들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연극창작센터 개관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맡은 연출가 황태선입니다. 그간 극단에서의 창작 활동이나 연극제, 지역 행사의 예술감독을 맡아 진행해온 경험은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센터의 개관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맡아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많은 연극인이 기대하는 센터인 만큼 그에 어울리는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극창작센터 개관 페스티벌은 어떻게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개관 페스티벌은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크게 '시대를 비추다'라는 제목 아래 초청 공연 프로그램이 있고요. '미래를 비추다'라는 주제로 부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초청 공연은 이미 제작된 우수한 공연을 초청한 것이라 동시대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부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극의 미래를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명명하게 됐습니다. 초청 공연은 실험적인 작품부터, 역사를 재조명하는 작품, 다양성을 논하는 작품 등 동시대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작품을 초청했습니다. 부대 프로그램은 역량 강화 워크숍, 시민과 함께하는 프린지 공연 그리고 센터 공간 곳곳을 찾다니며 체험하는 투어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센터 개관 과정에 함께하며 가까이에서 그 과정을 보셨으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개관 소감 한마디 들려주신다면. 가장 먼저, 서울연극창작센터는 건물이 아름답습니다. 다양한 공간과 기능이 존재하면서도 미적 아름다움도 갖춘 멋진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층과 5층에 특색을 갖춘 극장이 있고, 2층 연극인라운지, 3층 연극인오피스처럼 다양한 필요 시설이 배치돼 있습니다. 2층과 3층 야외에는 공연을 열 수 있는 마당이 마련됐고, 6층에는 옥상공원이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공간이 서서히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은 '저런 공간에 어울리는 멋진 공연이 탄생했으면 좋겠다'였어요. 3월 20일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개관 이후 많은 창작자가 센터 곳곳에서 멋진 창작물을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에 매일 설레는 마음입니다.

연극인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공간을 갖춘 서울연극창작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작 공간은

연극의 숙성 공간 혹은 부화 장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창작자의 실험실·시연실 같은 공간으로 다양한 세대의 창작 욕구를 실현해줄 거라 생각해요. 단순히 희곡을 쓰고 공연 초기 창작을 실험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연극의 모든 요소가 제대로 지원받고, 차근차근 성장하는 창작물도 많이 탄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센터가 그렇게 운영될 거라고 전해 들었고요. 살짝 듣기로는 개관 페스티벌 이후 센터의 정체성을 담은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니 많은 연극인이 관심을 두고 직접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 공간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곳을 꼽아주시고, 그 이유도 말씀해주세요. 아무래도 센터의 상징 같은 계단이죠. 보통 이동을 위한 수단인 계단이 센터에서는 무대가 되기도 하고, 객석이 되기도 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여러 창작자가 이 공간을 활용해 멋진 창작물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코너에서 바라보는 해질녘 풍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앞으로 서울연극창작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선 질문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창작자들은 나이에 따라 창작 욕구가 다르지 않아요. 다양한 세대의 창작자들이 동시대에 함께 숨을 쉬고 있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창작 요건은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연극창작센터가 연극인의 삶을 깊숙이 관찰하고, 그들의 세대·주제·기능별 세부적인 창작 요건을 다양하게 지원해 미래 연극을 도모하는 숙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빈 공간을 각기 달리 채워나가며 서울연극창작 센터를 만든 사람들

공간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사람의 손길이 깃들수록 그 깊이가 배가되곤 한다. 개관을 앞둔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공간을 쓰고 닦고 아껴온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연극창작센터 식구들에게 묻다

- 1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 2 이곳에서의 담당 업무는 무엇인가요
- 3 맡고 있는 공간의 특징을 소개해주세요
- 4 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 5 새 공간의 첫인상이 어떠했으면 좋겠나요
- 6 서울연극창작센터는 _____ (이)다

1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한 첫 공연장인 서울열린극장 창동을 거쳐 남산예술센터와 대학로극장 퀴드에서 조명감독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서울연극창작센터팀 조명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피울서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상경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무대미술을 전공했고, 무대디자인에서의 빛과 어둠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조명디자이너로 전공을 변경했습니다. 미국 칼아트CalArts에서 조명디자이너를 공부한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이후 조명감독으로 재단에 입사했습니다.

2 현재 서울연극창작센터 무대기술 파트를 총괄하면서 조명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공연 조명 디자인과 조명 전반을 유지관리하고, 서울연극창작센터 설계 및 시공, 리노베이션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3 1~2층의 서울씨어터 제로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자유로운 블랙박스 극장입니다.

대학로극장 퀴드를 설계·시공한 노하우를 최대한 적용해보려고 했습니다. 공연 작업자가 원하는 위치에 장비나 무대세트를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성하고, 공간의 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조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건축 설계의 한계로 인해 모든 부분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최소 의도를 구현하려고 노력했고요. 4~5층에 걸친 서울씨어터 202는 프로시니엄 극장입니다. 시공이 완료된 상태에는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면 천장의 높이가 낮고 배튼의 높이로 인해 무대의 3분의 1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운영자문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고, 관객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무대 기계와 조명 설비를 재구성·설치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또 나무 합판으로 된 천장 자재를 제거하고 철재 그리드로 변경해 객석의 개방감을 개선하고 음향의 확장을 유도하거나 가파른 객석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 극장을 완성하기까지 섬세한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이 외에 공연 스태프들을 위한 휴게실과 사무실,

공연 중에도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등을 구성해 편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고요.

4 서울씨어터 202의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처음 답사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연극 전문 공연장이라기보다는 학교 강당을 떠올리게 하는, 깨끗하고 반질반질하게 코팅된 베이지색의 무대 바닥과 천장·벽을 보면서 당황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문화재단으로 센터 운영이 이관된 후 리노베이션에 가까운 공사를 진행해 현재의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연극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와 효율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쓴 결과이지요. 기획·행정·시설·무대 파트가 하나가 돼 센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힘들었지만, 무척 즐거웠습니다.

5 개관한 후에는 많은 연극인이 즐겨 찾는, 모두에게 친밀한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6 서울연극창작센터는 '여행의 시작'이다.



피울서



1 2023년 11월,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창작센터팀이 신설될 즈음 입사에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김아연입니다. 이전에는 연희문학창작촌에서 뉴딜 청년문화매개자로 근무하며 문화예술 공간 운영을 경험했고, 그때의 경험이 지금 하는 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 공간에 관심이 많은데요. 업무적으로는 연극인오피스를 운영하며 공간 활용을 고민하고, 개인적으로는 집을 최대한 편안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신경쓰는 편입니다. 이제는 가구나 인테리어를 둘러보는 게 자연스러운 취미가 됐을까요.

2 저는 센터 3층에 위치한 연극인 전용 공유 사무실 '연극인오피스'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연극 분야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개별 사무실 12개(약 6평 규모), 회의실 2개, 커뮤니티룸, 탕비실, OA존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입주 단체 9곳을 선정했으며,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활발히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경 수시 공모를 통해 하반기 입주 단체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연극인오피스는 연극인이 창작과 함께 행정 업무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처음 논의될 당시, 대학로에서 다양한 페스티벌이 열리지만 정작 이를 준비할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어요. 특히 협회·단체만 아니라 페스티벌이나 공연 제작을 위해 단기로

구성된 단체들이 마땅한 업무 공간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최대 3년까지 장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의 단기 사무실을 마련해 프로젝트 단체도 유연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공간을 기획할 때는 유사 사례를 찾아보며 운영 방식을 고민했어요. 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을 방문해 공간 구성과 입주 지원 방식을 참고했고, 여러 조언을 구하며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재단의 공간 운영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희문학창작촌에서의 경험이 반영된 부분도 많아요. 공모 방식이나 공간 사용 기준 같은 세부 운영 방식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작공간의 노하우를 많이 차용했습니다.

4 공간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재단에서 처음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기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신축 공간이라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평가액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눈이 빠지게 들여다보면서, 이리저리 해당 조항을 찾아 적용하려 애썼습니다. 숫자 계산에 약한 편이라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몇 달간 임대료 산정에만 집중하다보니 관련 법령과 계산 방식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법률 검토와 승인을 거쳐 적절하다고 확인받았을 때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도 컸습니다. 어렵지만 보람 있는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5 서울연극창작센터는 규모만큼이나 그 안을 채우는 콘텐츠도 알차다는 인상을 전했으면 합니다. "서울연극창작센터에 가면 공연도 보고, 연습도 하고, 다양한 단체를 만나고, 리스태이지 서울에서 공연물품도 대여할 수 있어!"라고 예술가와 시민 모두가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활기차고 재미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6 서울연극창작센터는 '연극의 시작을 함께하는 곳'이다. 예술가에게는 창작의 준비 과정에서 든든한 기반이 돼주고, 시민에게는 연극이라는 장르를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만들어지고, 연습하고, 무대에 오르는 모든 순간이 연극의 시작과 함께하는 경험이 되면 좋겠습니다.

1 문화행정직으로 일한 지 4년 차가 된 윤혜원입니다. 지역 기초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전시 사업을 담당했고, 서울문화재단에 입사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두 재단에서의 공통점이라면 새로 개관하는 공간의 업무를 맡았다는 점입니다.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업무보다는 좀 불안정할 수 있지만, 시작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제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와 연결되는 관심사를 가지려고 하는 편이라, 요즘은 전시뿐만 아니라 연극·뮤지컬 등 공연 분야까지 관심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2 현재 극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관 후의 대관 사업, 공연 협력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면서 개관 페스티벌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개관 전 시범공연'이라는 사업을 통해 극장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처음 가동해보는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예술가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객석을 가득 채웠고, 사고 없이 무사히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기획공연을 진행해봤는데, 각종 피드백을 토대로 앞으로의 극장 업무에 잘 반영해보고 싶습니다.

3 서울연극창작센터의 두 극장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우선 센터 1층에 들어오시면 바로 만나볼 수 있는 '서울씨어터 제로'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지정된 객석 수가 '0'인 가변형 블랙박스 극장으로, '0'의 공간을 창작진과 관객이 함께 채워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층에 위치한 '서울씨어터 202'는 프로시니엄 형태의 비어 있는 000 무대와 객석을 각기 다른 사람들 100이 채워나간다는 의미를 담은 극장입니다. 극장의 무대 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부분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극장, 백스테이지, 로비, 티켓박스까지 처음 본 공간이 지금의 극장 공간이 되기까지의 모든 순간의 기억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 비슷한 연령의 팀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 힘들 수 있는 업무 상황에서도 정말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 사소한 농담이나 이야기거리도 잘 들어주고 웃어주는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큼니다. 인상 깊게 남은 에피소드 중 하나는

센터에서 처음으로 올라가는 시범공연 리허설이 있던 날인데요. 예술가들도 처음 쓰는 공간이라 긴장한 상태였고, 저희도 시설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리허설이 시작되자마자 걱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무대와 조명, 음향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이곳이 정말 극장이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뒤 다 같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던 순간의 감정이 아주 오래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아요.

5 공간에 대한 낯선 이미지보다는 이 자리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언제나 공간을 활용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련된 공간이어도 그 공간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공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는 연극인과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막연하던 개관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보내주시는 관심에 부응할지, 개관 후 운영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앞으로 공간을 방문해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근차근 준비를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6 서울연극창작센터는 '오래 남을 수 있는 첫 기억'이다. 첫 기억, 첫 경험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오래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극에 관심을 가지고 연극이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한 건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작품을 보면서 제 취향의 연극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극인에게는 새로운 무대에서의 첫 기억으로, 시민에게는 연극에 대한 첫 기억으로 오래 남는 센터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일상에서도 가깝게 연극을 접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2024년 1월 서울연극창작센터 업무를 통해 재단과 처음 만났으며, 그해 6월부터 지금까지 시설안전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할 때쯤 건축에 대한 관심이 생겨 관련 업무를 희망했구요. 처음 시작은 건축 도면을 그리는 설계 업무였는데요. 도면을 그릴 지 3년 정도 됐을 때, 종이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퇴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곳이 서울문화재단입니다. 재단에 지원할 당시에는 예술인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다 같이 만든다는 점에서 재미있게 일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금도 이런 열정적인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씩 배워가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센터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와 개관 준비를 위한 건물 내부 조성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센터 공사로 시작해 공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서울연극창작센터팀, 무대기자제공유센터팀(리스테이지 서울)의 많은 직원들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직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서울연극창작센터의 개관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 제게 서울연극창작센터는 입사하고 처음 맡은 건물이라 유독 뜻깊은 곳입니다. 처음 건물을 마주했을 때 적벽돌로 둘러싸인 외관이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센터 내부에는 연극인을 위한 오피스뿐만 아니라 시민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극장도 두 곳이나 갖춰져 있습니다. 6층에는 옥상공원이 있습니다. 옥상공원을 조성하는 내내 날씨가 좋은 날이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연극창작센터에 놀러 온다면 6층 옥상공원에 꼭 한번 방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5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적벽돌로 둘러싸여 있어 투박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층 내부에 들어서면 반겨주는 서울씨어터 제로와 2층 아카이브 공간 등 층마다 다양한 느낌과 인상을 자아내지요. 이처럼 방문하는 모두의 기억에 다채로운 건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6 서울연극창작센터는 '창작의 허브'다.



김재희

AS SOON AS I FEEL

- 예술가의 진심
정세랑, 현실을 뛰어넘고 상상의 한계를 돌파하는
- 예술인 아카이브
박종이
박상미
- 페이퍼로그
인사팀 김다엘
- 인사이드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서울청년문화패스
제3회 서울예술상
- 트렌드
감상을 넘어선 공연 경험의 확장
- 해외는 지금
긴자소니파크가 그리는 새로운 풍경

정세랑,

영어 접두사 '트랜스trans'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보통 형용사나 동사 앞에 붙어서 '변화' 또는 '초월'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돼 있다. 변화와 초월. 얼핏 보기에는 의미상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통하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변화는 주어진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정해진 한계를 극복하려는 몸부림 아닌가. 운명에 순응하지 않는 것, 세상이 부여한 역할에 맞서는 것. '트랜스'는 단순한 접두사가 아니다. 오늘날을 관통하고 있는 시대정신이다.

현실을 뛰어넘고

이런 '트랜스 정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요즘 소설 속 주인공은 누구일까.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설자은이다. 통일신라를 활보하는 남장 여자 탐정, 그 자신은 '평범한 문서 관리자'가 되고 싶었으나 세상이 그를 평범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던. 설자은 시리즈를 쓴 소설가 정세랑에게 설자은 탄생 비화를 들었다. 2023년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펴낸 뒤 얼마 전 속편 『설자은, 불꽃을 쫓다』²⁰²⁵를 출간했다. 설자은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질문, 왜 하필 '통일신라'인가.

상상의 한계를 돌파하는

"통일신라에 늘 관심이 있었어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외부의 적이 사라진 시대에 어떻게 내부를 통합하고 제도를 가다듬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신문왕 시대에 행해진 일들이 무척 합리적으로 보였기에 마음이 끌렸고요. 국제적이고 화려했던 문화도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정세랑은 편집자로 책을 만들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해 2010년 데뷔했다. 문단에서는 장르문학과 순문학을 엄격히 가르는 편이지만, 이런 분위기에 그리 개의치 않는 듯 양쪽 가리지 않고 작품을 써낸다. 소설가가 된 뒤에도 역사 시리즈물을 쓰고 싶은 마음을 깊이 품어왔다고 다른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는데, 그러고보니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했다. 역사를 향한 남모름 부채 의식 같은 게 있었을 걸까. 설자는 시리즈를 쓰면서 기억에 남는 독자의 반응을 물었더니 정세랑은 “학령기의 자녀와 함께 소설을 읽고 있다고 전해주시는 때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생생하게 듣는 10대 청소년이 시리즈의 재밌는 구석을

잘 발견하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무대가 과거인 만큼 철저하고 꼼꼼한 고증은 필수다. 역사물만이 전할 수 있는 쾌감이 설자는 시리즈의 매력 포인트 아니겠는가.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천년고도 경주는 소설을 위한 취재를 시작한 이후 매년 가고 있단다. 특히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신라천년서고에서 도움을 많이 얻었다. 신라천년서고는 박물관 안에 있는 도서관으로, 다양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집필에 필요한 책들을 수십 권 넘게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자료에만 얽매이지 않는다. 최근 고고학 발굴을 통해 새로 알려진 사실도 꾸준히 따라가고

있다. 활자로만 머무는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는 소설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생생함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자는 시리즈의 목적이 통일신라를 ‘다큐멘터리’처럼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건 아니다.

“취재한 것을 잘 소화해 ‘있었을 법한’ 공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다 해도 틀린 부분이 많을 테지만, 꾸며낸 이야기임을 분명히 하면 용인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설자는은 원래 설자은이 아니었다. 어떤 역사의 뒤편에는 슬픈 이야기가 깔린다. 설자는은 원래 설미은이었다. 설씨 집안 여섯째로 태어났으나 병으로 죽은 다섯째 자은을 대신하게 됐다. “다섯째로 살면 다섯째를 살린 것 같을까?”라는 소설 속 문장은 쉽게 해명되지 않는다. 미은은 그렇게 자은이 돼 자은의 운명을 걸머지고 여자의 몸으로 남자의 삶을 살아간다. 내가 선택하지 못한, 남이 규정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슬픈 일이다. 설자은에게 이런 가혹한 짐을 던져준 정세랑은 이렇게 말했다.

“활보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고 싶었어요. 시대를 감안하면 여성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주인공 둘 다 남성이면 여성의 세계에 진입할 때 난처해지지 않을까도 염려했습니다. 여러 성별을 움직일 수 있어야 전개하기 쉬우니까요. 과거를 미화하지 않으면서 행동반경을 넓히려려고 하다가 ‘클리셰’를 빌리기로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클리셰를 비틀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다 나온 것이 설자은의 성별을 의심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야 항상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설자은이 ‘권력’을 얻으면 더는 묻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질문을 받지 않는 게 권력의 특징이니까요.”

일개 사설탐정이던 설자는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권력과 가까워진다. 작가가 의도한 1권과 2권의 가장 큰 차이도 여기에 있다. 2권에서 설자는은 ‘집사부 대사’에 임명된다. 한국사 시간에 배우기로 집사부는 신라의 최고 권력 기관이다. 거기서 제3등 관직인 ‘대사’는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엄청 높은 자리’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설자은의



삶이 더 순탄할까. 으레 권력이 있으면 삶도 수월할 것 같지만 착각이다. 오히려 권력의 중심에 다가설수록 설자은은 더 힘들어진다. 권력이란 원래 이런 것이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이 무거울수록 책임도 커지고 생각도 깊어져야 한다. 뻔하고 당연한 진리를 우리 위정자들은 알고 있을까. 설자은이 권력을 갖게 된 2권을 통해 정세랑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설자는은 사책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움직여요. 그 변화 때문에 고통도 느끼겠지만 시야가 넓어지지 않았을까요? 어깨가 무거워지고 내면이

단단해졌을 겁니다. 앞으로 더 큰 정치적 사건 속에 설자은을 던지고 싶어요.”

장르가 추리물인 만큼 고전으로 치는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스 시리즈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모르긴 몰라도 인간이 문학으로 창조한 인물 중에서 셜록 홈스보다 유명한 이는 없을 것이다. 추리물을 쓰는 작가로서 셜록 홈스가 머릿속에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 정세랑 역시 “셜록 홈스의 천재성을 사랑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셜록 홈스에게는 없는, 설자은에게만 있는 매력은 무엇일까.

“설자은은 천재가 아니라는 점이 독자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것 같아요. 본인은 조용하고 평범한 문서 관리자로 살고 싶었는데 어쩌다보니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인생이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구의 삶이나 조금은 그렇지 않나요? 영망으로 휘말렸지만, 일단은 헤쳐 나간 경험이 현대인에게도 있으니 설자은에게 공감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한계 없이 뻗어나가는 상상력
요즘 독자 중에는 재밌는 소설을 읽으면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





세계를 호령하는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정세랑 역시 앞선 작품 가운데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어진 소설이 있다. 정유미·남주혁 주연의 <보건교사 안은영>이다. 확실히 장르문학은 영상화의 쾌감이 있다. 설자은을 읽으면서도 이런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소설 제목부터 딱하니 등장하는 주인공과 그가 종횡무진 활약하는 모습들. 작가도 영상화를 생각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누구를 떠올리면서 설자은을 그린 것일까. 아직 이 소설이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은 없다. 그래도 설자은에 푹 빠진 독자라면 머릿속에서 '가상 캐스팅'을 해봤을 수 있겠다. 혹시 작가가 염두에 둔 배우도 있을까. 정세랑은 묘하게 확답을 피했다.

“사극은 제작비가 많이 드는 편이라 들었어요. 영상화가 되면 좋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설자은의 얼굴은 마음속에서 계속 변하고 있는데, 키가 크고 서늘한 느낌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워낙 멋진 배우들이 많아 자꾸 설자은에 대입해보기는 합니다.”

다시 설록 홈스로 돌아가보자. 설록 홈스 시리즈를 언급하면서 주인공 설록 홈스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상당한 실례가 되는 일이다. 바로 존 왓슨이다. 존 왓슨이 없었다면 설록 홈스도 없었다. 설자은에게도 이런 영혼의 단짝이 있다. 백제 출신의 장인 목인곤이다. 설자은과 목인곤은 당나라에서 신라로 돌아오는 배에서 만난다. 설자은과 달리 목인곤은 경우가 조금 딱하다. 유학을 다녀왔더니 조국인 백제가 오간 데 없이 없어졌으니 말이다. 설자은이 남장 여자인 것을 대번에 알아본 목인곤은 그 대단한 눈썰미로 설자은을 옆에서 돕는다. 목인곤은 어떻게 창조된 인물일까.

“몇백 년 된 나라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돌아갈 나라가 없어진 이의 황망함과 그래도 또 살아나가는 생명력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면 했습니다. 과거는 각박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의 즐거움은 놓치지 않는 이로 그리고 싶었어요. 단순한 보조사 아니라 동반자로서 주인공과의 관계가 대등해 보였으면 합니다.”

장르문학에는 일정한 '문법'이 있다고들 한다. 쓰는 이와 읽는 이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틀을 의미하는 것일 테다. 그것에 충실하면 충실한 대로, 충실하지 않으면 충실하지 않은 대로 나름의 쾌감을 일으킨다. 장르문학이 끊임없이 창작되고 그 세계가 확장하며 발전하는 이유는 확실한 문법과 그것을 뒤돌고자 하는 창작자의 욕망 때문일 것이다. 설자는 시리즈 속 다양한 에피소드의 아이디어는 자료를 쌓아놓고 읽으면서 얻는다고 한다. 읽다가 흥미로운 지점들을 메모하는데, 그것들은 바로 에피소드가 되기도 하고 몇 년 묵혔다가 불현듯 떠오르기도 한다. 전혀 관련 없는 소재들이 갑자기 자석처럼 붙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정세랑은 노트북을 연다. 장르문학과 순문학의 경계를 자유로이 오가는 작가는 설자은 시리즈에서 “장르문학의 문법을 굳이 깨고자 애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크게 신경을 쓴 부분은 있다. 바로 '죽음'이다.

“장르적 쾌감과 'B급 감성'을 좋아하는 편이라 (장르문학의 문법을) 깨고자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둔 것은, 이야기 안에서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을 가볍지 않게 다루려고는 노력했죠. 추리물은 종종 시신을 발견하고 바로 게임을 하듯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상의 세계이지만 주의하려고 합니다.”

통일신라를 무대로 활보하는 설자은을 볼 수 있는 책은 앞으로 한 권 남았다. 하지만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 만큼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고 싶다고 했다. 계속 과거에만 머무를 순 없으니 3권 이후에는 현대물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인터뷰에서 정세랑은 “10권까지 쓰고 싶다”고 했다. 그는 “40대 초반에 시작한 시리즈를 60대, 70대까지 쓰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토록 사랑하는 설자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고생스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을 시켜 미안하지만, 의연하게 나아가기를 바라요. 가장 오래 함께하고 싶은 주인공이니 잘 부탁합니다.”

작가에게 ‘소설을 사랑하느냐’고 묻지는 않았다. 너무 낮간지러울 것 같아서다. 하지만 여러

질문을 통해 유추한 결과 정세랑은 분명 소설을 사랑하는 것 같았다. 하고많은 예술 중에서 왜 하필 소설을 쓰는지 물었더니 상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유를 댔다. 소설은 쓰는 데 작가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된다고. 물론 책을 출간할 때 인쇄가 필요하고 이 비용도 상당히 오르고 있지만, 예전대 영화에 비하면 자본으로부터 한없이 자유로운 예술이다. 문학의 힘은 어찌면 여기에 있다. ‘저렴하게’ 창조할 수 있는 예술이지만, 그렇기에 그 어떤 제약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상상력은 한계 없이 뻗어나간다. 그걸 적당히, 멋지게 설명할 수 있는 글재주만 있으면 문학은 성립한다. 현실에서 시작한 문학은 결코 현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현실을 뛰어넘고 상상의 한계를 돌파한다. 그리고 그곳을 우리 세계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학의 이념을 ‘자유’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다.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게 좋아 소설을 썼고, 그 독립성이 분명 공동체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흰 바탕의 검은 글자를 각자 읽어내면,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3차원이 된다는 게 놀랍죠. 소설을 통해 동시대의 사람들과 존재하지 않는 여러 삶을 풍부하게 통과하고 싶습니다.”

정세랑은 데뷔한 지 15년이 됐다. 대중의 뇌리에 여러 작품을 각인시키며 동시대 독자들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긴 소설가로 평가된다. 앞서 언급한 『보건교사 안은영』, 2015 외에도 『지구에서 한아뿐』, 2012, 『피프티 피플』, 2017, 『시선으로부터』, 2020 등을 써냈다. 스스로 느끼기에 ‘성격이 건조한 인물’을 자주 쓰는 것 같단다. 이글이글한 면은 그다지 없는, 평범한 생활인들이다. 하지만 원래 평범하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평범을 꿈꾼 정세랑 소설 속 주인공들은 평범을 ‘초월’한다. 설자은도 그렇다. 창비장편소설상·한국일보문학상 등 걸출한 상도 여럿 받았다. 설자는 외 어떤 소설을 쓰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모험하고 싶다”고 했다.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모험하고 싶어요. 도전해보지 못한 장르인 호러도 언젠가는 해 보고 싶구요. 쉽게 요약되지 않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엉뚱한 걸 시도하며 성취도 하고 실패도 한 사람으로요.”

박종이

시각예술/페이퍼아트

@paper_hyeyun

2024~2025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전시

《십장생: 안녕의 풍경》

“ 페이퍼아티스트 박종이입니다. 저는 종이를 재료로 회화와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종이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스튜디오 박종이’, 유튜브 채널 ‘박종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연 속에서 자라온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색, 형태, 빛, 냄새 등을 종이라는 매체를 통해 입체적인 세상으로 펼쳐며 기억의 조각들을 재현해나갑니다. 누구나 공감할 풍경이나 사물을 동화 같은 색감과 표현법으로 구현하고, 현실과 상상 속을 넘나들며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을 세상을 종이로 표현합니다. ”

“ 대학 졸업 후 바로 창작 활동을 시작했어요. 종이의 촉감과 색감에 매료돼 종이를 주재료로 쓰게 됐고요. 평면인 종이 자체가 손길이 닿아 입체가 되고, 제가 상상한 것들이 구현되는 과정에 재미를 느껴 창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 모든 예술의 첫 경험은 어릴 적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꽃이나 나뭇잎을 따다 그림을 완성하기도 하고, 심심하면 크레파스로

↓ 《작은 나의 아지트》, 2022



그림을 그리는 게 저만의 놀이였어요. 본격적으로 예술가의 길로 들어선 건 2022년 첫 개인전을 연 때가 아닌가 싶어요. 공식적인 예술가라는 명칭을 가슴에 단 느낌이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

“ 저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20년간 쪽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아왔고요. 그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지나다보니 정말 동화 같은 경험이었다고요. 바다에서 물고기들과 수영을 하고, 들판에서 꽃을 따며 뛰어놀고, 산을 오르면서 흙 내음을 맡은 경험이 서울에서는 시간을 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저한테는 그것이 일상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경험들이 제 작업의 시작이고, 영감들이 됐습니다. ”

“ 제가 가장 처음으로 작업했고, 가장 애정하기도 하며, 많이 사랑받은 작품은 《작은 나의 아지트》예요. 숲속에 나만의 오두막이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 집 뒤에 작은 숲이 있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 로망을 어른이 된 지금, 작품으로 이뤄냈죠. 많은 분들이 작품의 색감을 사랑해주셨지만, 어릴 적 한 번쯤은 꿈꿨던 기억이 마음으로 전달된 것이 사랑받은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입체 작업물과 캔버스 위에 작업하는 반입체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재료는 종이지만 종이의 색감과 형태가 오래도록 변형 없이 간직될 수 있도록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에요. 작가는 자기의 생각을 풀어나가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재료에 대한 이해와 연구 또한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6월에 있을 첫 해외 전시를 준비 중인데요. 로하갤러리 Loha gallery라는 작은 갤러리지만, 제 작품을 영국에서 선보이게 될 거라는 걸 상상해본 적이 없거든요. 약간의 걱정은 있지만 흥분과 설렘이 더 큼니다. ”

“ 유튜브에서 ‘박서보의 삶과 예술’이라는, 2년 전에 제작된 고해 박서보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 영상이 제게는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삶이 곧 예술’이었구나 싶었어요. 작가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본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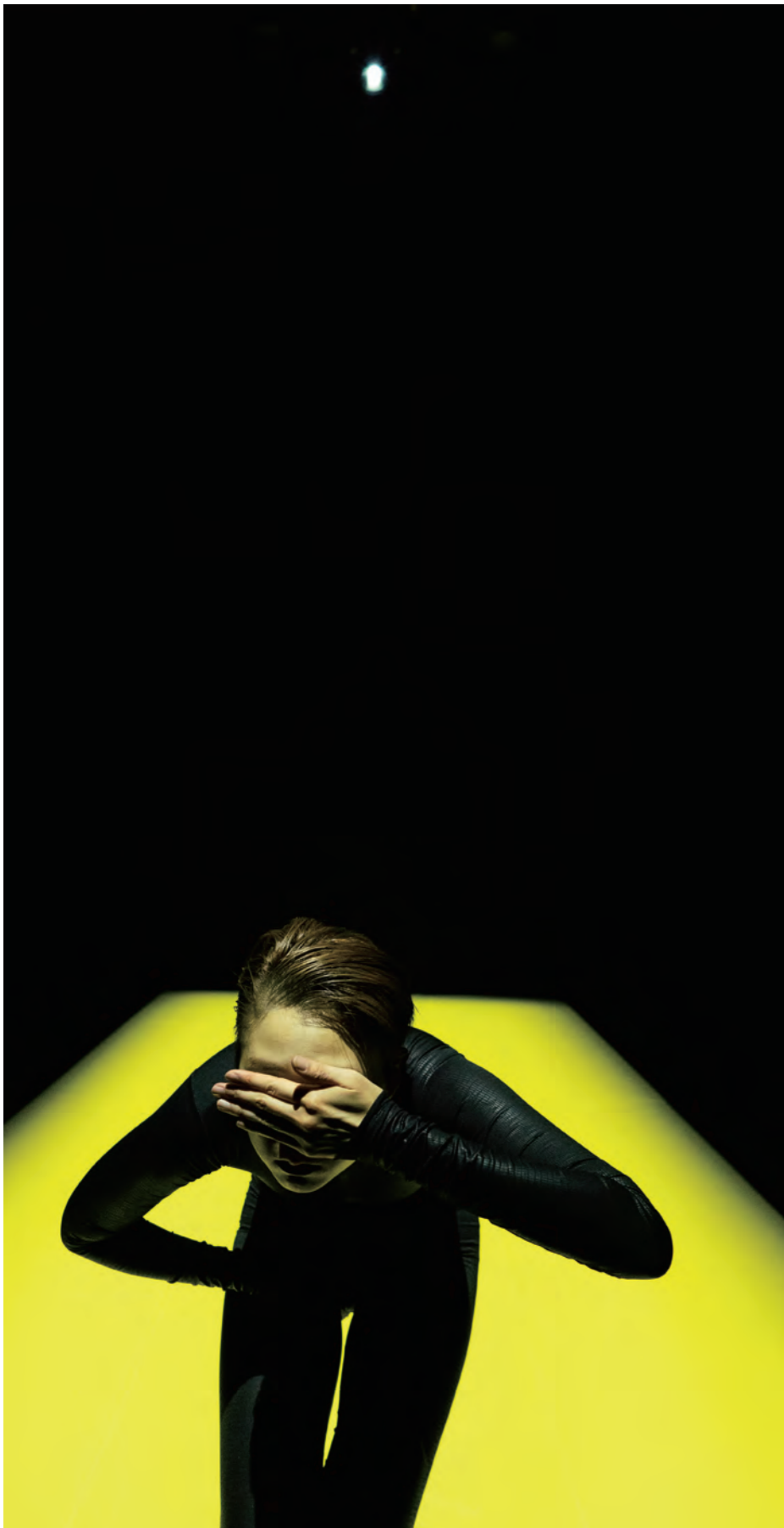


삶 자체가 예술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표현할지 단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사명감, 본인이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책임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 등이 담겨 있었고요. 박서보 선생님의 말씀도 흥미롭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

“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싶어요. 워크숍도 제 작품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전시 형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 작품들은 멈춰 있거나 간혀 있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이 흘러가거나

↑ 《집으로 가는 길》, 2022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작품이 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제 작품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도 음악처럼 기분에 따라 즐길 수 있는 작업을 선보이고 싶어요. 회화 작업이라면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페이퍼아트를 스톱 모션이나 다양한 영상으로 제작하면 음악이나 영화처럼 날씨와 기분에 맞춰서 틀어보고, 또 반복해서 여러 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술이 조금 더 자연스레 우리 삶에 스며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표현 방법과 장르,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



박상미

무용/현대무용
 @luckysm_
 @mmmm_sm_
 2025 상반기 서울무용센터
 입주예술가

춤 작업을 지속해오면서 신체의 물질성과 몸이 관계 맺는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안무가 박상미입니다. 그 과정에서 몸으로 감각하고 사유하며 새롭게 발견되는 환경(자연)과 사물의 공간 속 움직임 발견하는 것에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춤이 된 몸'을 상상하며 무엇과도 연결될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열린 상태를 연습 중입니다. 열린 상태를 연습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혹은 드러나지 않는 경계에 있는 것들을 탐구 대상으로 합니다. 저는 실천적 움직임의 주체로 삶과 예술의 경계에서 글쓰기와 이미지 기록(사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트프로젝트보라 부디렉터이자 독립 아티스트로 춤을 통해 다양한 만남과 소통의 통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 <In my room>, <원래의 몸>, <Home:흙> 등이 있어요. 최근 TIMF양상블과 협업해 마우리치오 카겔(Mauricio Kagel 'Rrrrrrr.....'을 안무했습니다. <내가 물에서 본 것>, <유령들>, <무악> 등 작품의 리허설 디렉터이자 협력 안무가로 창작의 범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퍼포머 활동은 해외 무용단에서 처음 시작했고, 국립현대무용단 창단 무용수를 거쳐 현재 아트프로젝트보라의 코어 멤버로 창작에 기반한 다양한 경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과 소통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움직임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과정의 시간까지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의 매력을 느낍니다.

← <In my room>(2020) ©금서원



내 안의 저항성을 발견할 때, 끊임없는 의심과 의문을 품을 때 예술가임을 자각합니다. 삶과 예술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조금씩 직면하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을 마주할 때, 야금야금 흘러가는 매일 다른 하루를 마주하는 것처럼요. 제 직업명은 모든 것들을 춤과 연결해 바라보는 것인데요. 춤을 추고 있지 않아도 일상의 움직임 또는 주변의 변화에 대한 감지가 영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작은 순간들을 알아차리고 기록하는 태도,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난 작업으로부터 현재에 있는 나를 반추할 때 그 과정에서 계속 변화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몸'이라는 매개로부터 그 호기심이 출발하는데요. 이미지와 춤의 발생, 즉흥성과 우연성의 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몸 언어를 발견하는 지속된 시간은 본질적인 질문이 돼 돌아옵니다. 현재 서울무용센터 입주예술가로서 하는 작업은 최근 제 주된 관심과 질문인 '돌봄', '다정함' 두 가지의 키워드에서 출발했습니다.

'몸'이 하나의 시작이면서 세상과 접속하는 첫 관문이라면, 그 문을 넘어서 외부의 타자를 만나고 다른 공간을 접촉하는 것은 어쩌면 '다정'이 피어나는 시작점이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만큼 나를 내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다른 것들과 연결돼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다정한 몸을 상상해보기 시작했구요. 춤이 이것들을 연결할 수 있을지 끊임없는 의문을 품으며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내는 일, 문을 열고 자리를 내어주는 시도를 해 보려 합니다. 춤을 통해 '우리-다른 존재들의 어울림-공존'을 향한 체험·실험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어요.

영감을 얻기 위해 종종 산책합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공기와 바람을 맞으며 보이는 것, 들려오는 소리에 한 발 한 발 무게를 옮겨요. 그러다가 익숙한 곳이지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발견하거나 그날그날 변화하는 풍경을 마주할 때 충만함이 감동지요. 대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흥미로워합니다. 다양한 생명체의 움직임, 광대한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동시에 저와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 <기존의 인형들(Post Puppetry): 원래의 몸>(2021) ©정민영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나를 발견할 때 재미있어요. 또 같은 분야 또는 다른 분야 창작자들의 창작 과정이나 작업물을 가까이에서 또 멀리서 공감할 때, 이런 활동들이 창작의 원천이자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 '찰나-사라짐-영원하지 않은 것-변화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라짐의 연속에서 발견되는 빛나는 겹의 시간이라는 '춤'의 지점이 영화에서 말하는 '코모레비', 그 순간에만 존재함을 뜻하는 것과 맞닿았습니다. '찰나'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매일의 다른 하루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재출간된 차학경의 책 <딕테>도 추천하고 싶은데요. 딕테(dictée)는 프랑스어로 '받아쓰기'라는 뜻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작업과 방법론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발견돼 읽고 있어요. 절대 나와 동일시 할 수 없는 타인의 시대와 시간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언어를 찾아 새로운 쓰기를 하는 작업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은 한국의 유관순, 프랑스의 잔 다르크, 그리스 신화의 뮤즈, 저자의 어머니, 자신 등 여성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이것들이 모여 하나의 장르에 갇히지 않는 열린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데, 글과 이미지, 이중 언어(프랑스어·영어)의 배치 등 콜라주처럼 펼쳐진 말의 지도 같았어요. 닿지 않은 수신인을 향한 혼잣말이자 탐험 같기도 했죠.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다 보면 응물적이고 리듬감 있는, 마치 들리지 않는 목소리의 울림과 움직임 같은 것들이 몸으로 와닿았는데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신체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춤을 통한 치유와 돌봄의 소통을 그려봅니다. 우리의 몸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다른 존재들과 어떤 연결을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는 미래의 예술을요. 불확정성이 가득한 기류에서 단절되는 외면과 방치되는 것들을 살피고, 그것을 직시하고 인정하며 좀 더 폭넓게 수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몸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연대를 상상합니다. 그런 몸과 춤이 닿을 수 있는 곳에 함께하고 싶어요.

인사팀 김다엘 예술이 우리 삶에 줄 수 있는 것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다엘입니다. 예술을 전공했고 국제 교류에 관심을 두고 있어 졸업한 뒤 주흥가리한국문화원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관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곳을 찾던 중에 서울무용센터 계약직 채용 공고를 보게 됐고, 그렇게 서울문화재단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로도 재단에서 꾸준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을까요. 서울무용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춤에 관심이 깊어졌고, 어떻게 하면 관련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아무래도 센터 공간 안에서만 일하다보니 다른 부서의 사업은 둘러볼 기회가 없기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용가들이 타 장르와 협업하거나 분야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됐고, 자연스럽게 제 시야도 넓어진 것 같아요. 재단에서 오래 일한다면 무용만 아니라 더 다양한 일을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입사하게 됐습니다.

서울무용센터에서 진행한 국제 교류 사업을 소개해주세요. 우선, 미국·일본·독일의 예술기관과 협력 운영한 해외 안무가 교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무가를 일대일로 교환 파견해 일정 기간 현지 예술가와 교류하고, 본인의 작업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서울무용센터가 자체 운영한 프로그램으로는 국제 레지던시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국적의 예술가들이 센터에 입주해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담당하던 시기는 해외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던, 코로나19 사태 이전이었어요. 팬데믹 이후 서울무용센터의 사업 방향이 입주예술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되면서 국제 교류 사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네요.

예술가의 곁에서 가깝게 호흡하며 일하는 것이 매력적이네요. 공간과 사업을 운영하는 행정직이지만 예술가와 소통하고, 이들의 작업을 외부에 소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술가가 사용하는 작업의 언어를 이해해야 했고,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경우 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다시 쓰는 일을 자주 했어요. 그 과정은 예술가의 작업 세계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해외 예술가와와는 작업 과정에서의 소통은 물론이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을 줬어



했기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센터에 오래 머문 해외 예술가들과는 아직도 안부를 주고받기도 해요. 서울무용센터에서 리서치한 작업이 작품으로 완성돼 공연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괜히 뿌듯해지곤 합니다.

지금은 영역이 완전히 다른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크게 교육, 직장 내 고충 예방과 대응, 워케이션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 파트로는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운용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과 입사자·승진자·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기획·실행합니다. 근무하는 공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감정노동 등 '직장 내 고충'이라고 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요. 2024년 정식 도입한 직원 대상 프로그램인 '워케이션'은 사무실 공간에서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분위기를 환기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무용센터에서 인사팀으로, 어떻게 보면 생경한 행보인데요. 사기업 환경에 빚대 보자면 완전히 다른 직군으로 전환한 셈이죠. 하지만 서울문화재단은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입사 때부터 각오(?)한 상황이긴 합니다. (웃음) 인사팀에 발령받은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사업을 운영할 때 겪는 어려움과는 다른 성격의



일이 많다보니 해결 방식을 터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그럼에도 인사팀에 근무하며 사업 부서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영 면에서의 판단이나 조직의 전략, 방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회사에서 애타워 도입하고 있다는 '워케이션'에 대해 좀 더 소개해주신다면. 서울문화재단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협력해 워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회에 걸쳐 직원 22명이 제주도와 전주에서 진행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광역문화재단 직원과 함께하기 때문에 동종 업계 종사자간 교류도 기대할 수 있고, 해당 지역 문화재단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주는 덕분에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을 돌아볼 기회도 주어진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대부분 워케이션의 경우 '휴가(vacation)'에 중점을 두고 오전에는 근무, 오후에는 문화 체험을 배치해

2~3일간 운영하는데요. 재단의 경우 최소 1주, 최대 2주까지 기간을 뒤 직원이 업무 시간에는 일에 집중하고, 퇴근 후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심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직원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최상이고요.

우리 삶에 예술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삶에 스며드는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정책도 너무나 필요하지요.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예술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재단에 입사하기 전 해외 기사에서 '예술The Arts'이라고 적힌 찻잔전자와 '잃어버린 영혼Lost Soul'이라고 쓰인 찻잔이 그려진 일러스트를 본 적이 있어요. 제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할 만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영국 사람인 작가가 영국의 차 문화에 빚대 그린 그림으로, 굳이 설명하자면 예술이 우리 삶에 줄 수 있는 것, 내지는 예술의 힘을 상기하게 됐달까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아서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을 계속해서 믿으며 나가자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해준다면. 예술가가 아닌 제게 '영감'이라는 단어는 좀 어색한데요. (웃음) 저는 여행에서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여유가 없었지만, 그전까지 한 달에 한 번 휴일이나 주말이면 소소하게 국내외로 떠나는 프로젝트를 2년 정도 해왔거든요. 관광지를 둘러보기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여행하며 느낀 것들을 간단하게 글로 남겨두는 편이에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 영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과 재단, 함께 발맞춰 걷다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최근 국내 문화예술계에도 민관 협력형 기부 문화가 활발해지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기부 문화와 인식이 단순 금전적 지원이나 나눔 수준에서 나아가, 기부 감각을 일깨우며 그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참여'와 '경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기부는 ESG 경영의 하나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예술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화예술 후원은 기업이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전략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과 예술단체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의 필요성은 서울문화재단 서울메세나

지원사업과 맞닿아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러한 기부 추세를 반영하고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 예술과 기업이 함께 공동 가치를 창출하는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시작된 이 사업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고 예술단체의 창작 지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의 대표 사례다. 이는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문학 등 7개 분야의 문화예술 프로젝트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29개 예술단체가 본 사업을 통해 기업 기부금 4억 5천만 원을 유치했고, 재단은 이에 더해 3억 4천만 원을 매칭 지원했다. 지난 5년간을 살펴보면, 130개 기업으로부터

총 38억 원 규모의 기부금을 유치하는 등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다. 여기에 재단은 기업이 후원한 기부금(500만 원~한도 없음)의 최대100%까지 매칭금(최대 2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일조해왔다.

올해는 행정평가 단계부터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활용하고 지원금 의결 과정에 심의를 추가하는 등 전년도보다 개선된 운영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선정 예술단체의 정산과 평가 과정을 간소화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단체가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은 선정 단계 중 기업 예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에 심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후원 기업은 금전적 후원 외에도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공연,

↓ (사)세종술로이스츠(2022~2024년 선정 예술단체)
(실내악 시리즈 골드베르크 변주곡)



서울문화재단은 민간 후원(기부금·협찬)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제휴 협력 사업을 확대 운영해나갈 것이다.

MINI INTERVIEW

(사)세종술로이스츠
(2022~2024년 선정 예술단체)

Q.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A.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기업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예술 창작 환경을 구축하고자 신청했습니다.

Q. 지원 전후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재정적인 도움 덕분에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기업 협업을 통해 홍보와 마케팅 기회가 증가했습니다. 관객과의 소통 역시 증가했고요.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은 기업과 예술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특성화 지원 2025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접수 안내

- 접수 기간**
2월 17일부터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 접수 방법**
예술단체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원기업 | 지정 양식을 내려받아 seoulmecenat@sfac.or.kr 로 이메일 접수
- 공모 내용**
서울문화재단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예술단체 프로젝트(작품) 지원
- 지원 대상**
2025년 서울에서 발표되는 예술 작품을 기획 중이며, 후원 기업이 확정된 예술단체
- 지원 내용**
후원 기업 기부금의 최대 100%까지 재단 지원금 매칭(2천만 원 내)
- 지원 분야**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문학 7개 분야의 작품 발표
- 선정 범위**
재단 매칭 지원금 총 3억 4천만 원 내 약 27~29개 단체



↑ (주)팩토리메디션&오차드(주) (조음(Correspondence))
(2024년 선정) ©Katja Hagelstam

문화예술 교육, 워크숍·강의 등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하며 '기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느낄 수 있다. 후원 기업은 서울문화재단 홍보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알릴 수 있으며, 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단체는 작품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발표까지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2025년에 진행될 사업이라면, 공모 기간인 2월 이전에 시작한 사업도 인정해 예술단체가 기간의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고자 한다. 단, 3년간

연속으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는 1년의 휴지기를 거치도록 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예술단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예술단체에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예술단체 모두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기업의 기부는 공공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예술지원 제도의 폭을 넓히는 민관 협력형 예술지원 모델이다.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기업의 다양한 예술 체현, 지속적인 기부 경험은 향후 도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난해 말, 서울청년문화패스는 대한민국 청년정책 어워즈에서 최우수상(지방자치단체 부문)을 받으며 명실상부 국내를 대표하는 청년 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수상은 청년이 직접 정책 발굴에 참여하고, 전문가 평가와 1,200명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는 점에서 뜻깊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청년문화패스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출시, 청년의 문화생활 지원 범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202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연간 20만 원 상당의 문화관람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150% 이하 가구의 2002~2005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자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서울청년문화패스 누리집(youthcultureseoul.kr)에 등록된 공연·전시를 예매하면 된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의 문화 향유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기초예술 장르(시각·연극·뮤지컬·클래식 음악·국악·무용) 공연·전시에 한해 관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자발적인 문화생활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회초년생의 취향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기초예술 장르 작품 관람을 지원하는 것. 또한 서울청년문화패스에서는 장르별 전문가로 구성된 작품추천위원회를 운영, 이들이 국내 공연예술 생태계와 청년의 기호 형성에 기여하는 작품을 선정·추천해 문화예술 활성화를 장려한다.

2025년, 무엇이 달라지나요

어느덧 3년 차 사업으로 접어든 서울청년문화패스는 모집 시기를 앞당겨 예년보다 빠르게 청년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2월 24일부터 서울청년몽땅정보통신누리집(youth.seoul.go.kr)에서 신청자를 모집하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의무 복무 제대 군인에 한해 지원 나이를 최대 3년까지 연령 가산해 지원한다. 군 복무로 문화생활이 쉽지 않았을 제대 군인에게도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급변하는 문화예술 트렌드, 그리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 대상 사업인 만큼 청년 이용률이 높은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해 소통 창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에도 더욱 힘을 쏟아 사업 홍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의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기획해 이들이 미래의 소중한 관객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

최근 젊은 예술가들이 대중매체에서도 활약하며 기초예술 장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은 최호종의 공연이 연일 매진을 기록하기도 하고, 다수의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잘 알려진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또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작품 큐레이션 콘텐츠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수한 공연·전시를 청년의 시선으로 소개하며, 작품과 관객 사이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청년문화패스 서포터즈'의 역할 또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 서포터즈는 당초 12명 규모로 계획했으나 2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선발 인원을 20명으로 늘렸다.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120건 넘는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 서울청년문화패스 서포터즈는 사업 참여자 선정이 모두 끝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니 관심 있다면 공지를 놓치지 말 것.

서울청년문화패스 공식 채널
 누리집 youthcultureseoul.kr
 인스타그램 @youthcultureseoul
 카카오톡 @서울청년문화패스
 유튜브 @youthcultureseoul
 문의 1533.3427

한류를 주도할 서울대표작품 제3회 서울예술상



오는 3월 19일, 수준 높은 예술 창작으로 예술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한 역량 있는 순수 예술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3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이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된다. 한 해 동안 예술계를 빛낸 우수한 작품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축하하는 자리다.

'서울예술상'은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선정작과 한 해 동안 서울에서 발표한 예술 작품 중 경쟁력 있는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공공 영역의 유일한 순수예술 종합 시상 제도다. 우수한 작품을 발굴해 예술인·단체에는 창작 동기를 유발하고, 작품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며, 작품의 유통과 확산을 통해 서울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시상식을 마련했다.

제3회 서울예술상 시상 부문은 대상, 최우수상, 포르쉐 프린티어상, 심사위원 특별상이다. 연극·무용·음악·전통·시각·다원 6개 분야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선정작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최우수상을 시상하고, 그중

한 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각 장르에서 작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동시에 새로운 시도와 발전 가능성이 돋보이는 유망예술인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6개 장르 수상작 중 한 작품에 대해 연내 재공연을 지원한다. 심사위원 특별상 작품 부문은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을 받지 않은 작품 가운데 2024년 서울에서 발표한 우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예술인 부문은 최근 2~3년간 활발하게 활동하며 장애예술 분야의 확장에 기여한 장애예술인에게 수여한다.

수상작 선정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초, 60여 명의 분야별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2024년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450여 편에 대해 작품당 세 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치해 연간 전수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재단으로서는 공정성을 극대화한 최초·최대 규모의 평가다. 이러한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결과물이 점수 합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을 병행해 후보작을 선정했다. 평가 점수를 합산했을 때 고득점이어야 함은 물론, 평가 의견이 갈리는 경우 채점자의 일정 비율이

고득점을 부여한 작품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세부 기준을 활용해 좋은 작품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대상 수상작 1편에 2천만 원, 장르별 최우수상 6편에 각 1,500만 원, 포르쉐 프린티어상 6편에 각 1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6편 중 한 작품에 대상을 수여하며, 대상은 시상식 당일예 발표한다. 심사위원 특별상 작품 부문 4편과 장애예술인 부문 1명에 대해서는 각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시상에는 예술 분야별 원로예술인과 전년도 수상자들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한다. 특히 시상식 당일에는 전년도 대상을 받은 99아트컴퍼니가 축하공연을 올려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공연·시각·다원 등 전 장르 작품과 장애예술인까지 아우르는 공공 영역 유일의 순수예술 종합 시상 제도인 서울예술상 선정작에 대한 외부의 관심도와 신뢰도는 높다.

제1회 서울예술상 연극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극단 코너스톤 <맹>이 제3회 거창국제연극제에 초청받았고, 제3회 거창국제연극제에는 제2회 연극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인 청춘오월당 <우리교실>, 제2회 대상 수상작인 99아트컴퍼니 <제Ver3.타오르는 삶>이 참여했다. 제2회 포르쉐 프린티어상 연극 부문 선정작인 극작가 동인팔호 <다른 부영>은 포르쉐코리아 후원금으로 지난 1월에 재공연을 올리기도 했다.

올해는 역대 대상 수상자인 허윤정(전통, 제1회 대상)과 99아트컴퍼니(무용, 제2회 대상)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외 한국문화원이 협력해 진행하는 투어링 케이-아츠 Touring K-Arts 사업과 연계해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 허윤정은 유럽의 빈·프라하·부다페스트 3개국 3개 도시, 99아트컴퍼니는 파리·브뤼셀·로마·바리·프라하 4개국 5개 도시를 투어할 예정이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서울예술상은 예술인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자리이자, 좋은 작품이 충분한 주목을 받으며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양질의 예술 작품을 발굴해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좋은 작품이 꾸준히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세부터 23세 서울거주 청년이라면? 서울청년문화패스

서울시가 20세~23세 청년들에게 문화관람비 20만원 지원합니다.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관객이 공연의 일부가 된다면?

감상을 넘어선 공연 경험의 확장

좀처럼 공연장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골목 한 귀퉁이 작은 건물 앞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개인 집을 맡기고 호텔의 바(bar)로 꾸며진 공간에서 잠시 대기한 뒤 곧 각자의 동선대로 배우들을 쫓아 서사를 쌓아간다. 이것이 공연일까? 명확하게 전달되는 대사는 없지만, 공간 자체가 서사가 돼 잠시 다른 세상에 떨어져 탐험하는 기분이 든다. 관객마다 보는 장면이 상이하고 시점도, 해석도 다르다. 집단 관람이기보다는 개별적인 체험에 가깝지만, 그 어느 공연보다 긴밀한 인터랙션이 경험의 밀도를 더한다. 필자가 오래전 <슬립 노 모어 Sleep No More>를 처음 접한 느낌이다.

집단 관람에서 개별 체험으로, 확장되는 공연 경험

2000년대 대표적인 이머시브 시어터 Immersive theatre <슬립 노 모어>가 2025년 드디어 한국에 입성한다. 프로시니엄 무대와 달리 객석을 구분하지 않고 매키트릭 호텔의 방으로 설계된 공간 전체가 무대이자 객석이 되고, 각자의 동선대로 옮겨 다니는 관객의 참여가 곧 공연의 일부가 되는 독특한 공연이다. <슬립 노 모어>는 2003년 영국에서 초연한 뒤 뉴욕과 상하이 등에서 공연되며 이미 국내 관객에게도 많이 알려진 이머시브 시어터, 즉 몰입형 연극이다. 한국에서는 2024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서울 중구의 대한극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막할

예정인 별써 시어터고어 Theatrogoer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퍼지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이머시브 공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 소개되는 이머시브 작품도 한층 다양해졌다. 1920년대 개츠비 작품도 관객을 초대하는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2022년 LG아트센터 서울 U+스테이지 개관작으로 선보인 영국 단체 디크필드 DARKFIELD의 3부작 공연 <고스트십>, <플라이트>, <코마>, 이머시브 다이닝 형식으로 공연된 <그랜드 익스페디션 The Grand Expedition> 등에 이어 지난해에는 미국 출신 배우이자 연출가인 제프 소벨 Geoff Sobelle의 이머시브 공연 <푸드 Food>가 국내 관객을 찾았다. 식탁에 둘러앉아 소벨이 직접 제공하는 음식을 나누며 함께 소통하는 독특한 형식의 이 작품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서 관객이 함께 완성하는 퍼포먼스의 의미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머시브 형식을 적극 차용한 창작극도 부쩍 늘었다. 2023년 초연한 뮤지컬 <롤렛>은 관객의 배팅과 선택에 따라 공연의 결말이 달라지는 작품으로 시종일관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고, 지난해 선보인 뮤지컬 <흔해빠진 일>은 회전 좌석에 앉은 관객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오가는 개방형 무대를 360도로 즐길 수 있도록 연출해 경험을 확장했다. 이머시브 공연의 범주는

넓고 층위도 다양하다. 단순히 이머시브 요소를 장치적으로 일부 결합한 공연이 있는가 하면 공간 구성부터 작품의 구조 자체를 본격적인 이머시브 시어터로 구축해 몰입을 극대화한 작품도 있다. 다양한 공연의 느슨한 공통점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위한 여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작품에 따라 관객의 참여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구분된 객석처럼 수동적 관객으로만 머물게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머시브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다.

완전하지 않은, 여백을 채워나가는 즐거움

영화나 OTT 등 넘쳐나는 다른 문화예술 콘텐츠에 비해 공연은 상대적으로 관객에게 불친절하다. 티켓 가격도 만만치 않은 데다 예매나 관람의 과정이 그리 수월하지 않은 때가 많다. 라이브 공연의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도 늘 내재해 있다. 그런데도 완벽하게 준비된 공연이 아닌, 내용이나 퀄리티가 동일하게 보장되지 않는 이머시브 공연이 관객을 이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러니지만 바로 그가 변성과 이를 채우는 관객의 역할이 오히려 몰입과 상호작용을 배가한다. 근사하게 차려져 서빙되는 테이블이 아닌, 완벽한 맛은 아닐지언정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 자체가 대체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는 셈이다. 관객의 참여는 다른 관객에게 공연의 일부가 되고, 개인의 체험에 따라 작품의 해석 또한 다층적으로 열려 있다. 이머시브 공연의 매력은 바로 완전하지 않음, 관객이 채워나가는 여백에 있다.

일상 속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문턱이 점차 낮아지는, 디지털 관여도가 높은 젊은 층에게 능동적인 관객으로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한층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공연 산업의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라이브'로 완성되기에 가능한, 함께 채워나가는 열린 과정이야말로 적극적 참여를 원하는 관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공연만의 강력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눈과 귀로 전달되는 수동적 관람이 아닌 오감으로 부딪히고 직접 완성하는 개별적 체험에 가치를 두는 이머시브 공연의 트렌드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심 속 휴식, 긴자소니파크가 그리는 새로운 풍경

도쿄 긴자거리는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지며 활기찬 분위기와 품격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현대적인 건축과 일본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 한가운데 1월 26일, 긴자소니파크Ginza Sony Park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긴자 한복판에 등장한 이 공간은 단순한 쇼핑몰이나 관광지를 넘어, 도시의 심장부에 신선한 에너지를 더하고 있다. 예술과 문화를 자유롭게 실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도심 속 공공 공간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이곳. 도코를 찾는 이들에게 긴자소니파크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까?

혁신으로 완성된 도심 속 열린 실험 공간

긴자 거리에는 일본 전통 건축물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긴자식스, 세계적 건축가 렌초 피아노Renzo Piano가 설계한 유리블록 외관의 에르메스 빌딩, 피터 마리노Peter Marino의 설계로 밤이 되면 LED 패널로 조명을 밝히는 샤넬 빌딩 등 유명한 건축물이 즐비하다. 이런 긴자에 올봄, 새로운 랜드마크가 등장했다. 시민을 위한 공원과 예술 실험 공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긴자소니파크는 현재 도쿄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축물로 꼽히며, 도시의 공공 공간 개념을 재정하고 있다. 긴자는 거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긴자 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56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긴자소니파크는 기존보다 절반 정도 낮게 설계해 빌딩과 인파로 가득한 도심 속에서 여백을 만들어냈다.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음악·문학·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를 개최하며 거리에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긴자소니파크는 50년 이상 한 곳에서 자리를

지켜온 소니 빌딩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로, '도시를 향해 열린 공간'을 콘셉트로 내세우며 2017년 시작했다. 1966년에 지은 기존 빌딩에는 소니의 창업자 중 하나인 모리타 아키오가 '긴자의 정원'이라 부르던 10평 규모 공간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긴자의 정원을 공원으로 확장해 누구나 쉽게 즐길 장소로 만들어 도심에 새로운 리듬을 선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출발했다. 건축가들은 기존 빌딩을 대체하지 않고 본래 구조를 활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 공간을 디자인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또한 지하로 확장된 개방형 구조를 도입해 도시 환경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팬데믹 사태에도 약 3년 동안 방문객 854만 명을 맞이했고, 철거와 신축 공사를 재개해 2024년 8월 최종 형태를 완성, 올해 대대적으로 문을 열었다.

기존 상업 건축물을 실험적 공간으로 탈바꿈해 공공 예술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한 긴자소니파크. 이곳은 공간의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해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개장 이후 다양한 예술·테크놀로지·환경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며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미술 전시와 음악 퍼포먼스, 영화상영, 패션쇼는 물론, 일렉트로닉, 재즈, 힙합 등 라이브 퍼포먼스, 소니 뮤직과 협업한 신진 아티스트의 쇼케이스, 인터랙티브 및 테크놀로지 체험, AR과 VR을 활용한

→ <소니 파크 전시회 2025>에서 선보인 요아소비 협업 프로그램 ©Ginza Sony Park



← 긴자소니파크 건축물 ©Ginza Sony Park

미디어아트 전시, 게임 및 영상 등 다양한 볼거리가 실 틈 없이 열린다.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한 워크숍과 강연 등도 놓치지 말 것. 입장은 무료지만, 특정 프로그램은 사전에 온라인에서 예약해야 참여할 수 있다.

쇼핑 중심지가 아닌, 문화예술 휴식처로

이 외에도 도쿄는 도시 계획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합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롯폰기힐스에 있는 고층 빌딩 모리타워는 전망대·미술관·공연장 등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곳이다. 일본을 넘어 국제 예술의 흐름을 선도하는 모리미술관은 예술 애호가들에게 이미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잡았고, 시내 전경을 한눈에 감상하며 예술과 도시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전망대 또한 명소다. 2023년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문을 연 아자부다이힐스는 다양한 숍과 다이닝은 물론, 미디어아트 그룹 팀랩의 작품을 선보이는 팀랩 보더리스, 세계적 갤러리 페이스, 교토의 유명 서점 오가키 등을 한데 모았다. 특히 녹음과 건축물이 어우러진 독특한 조경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역시 2023년에 토라노몬힐스 스테이션타워를 개장하며 확장한 복합 문화단지 토라노몬힐스에는 고급 호텔, 다이닝과 카페·아트숍·갤러리 등이 한곳에 자리해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긴자소니파크의 PR 담당자 아사이 케이코Keiko Asai의 전언을 덧붙인다. "도쿄를 여행한다면 꼭 긴자소니파크를 방문해보세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채로운 액티비티 라인업이 지역에 리듬을 불어넣는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풍부한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창밖 거리의 '차경(借景)'(만 산 등의 경치를 정원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을 감상하고, 곳곳에 자리한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소니 파크 전시회 2025>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경험하거나 다이닝 문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문화+서울] 독자 여러분과 한국 방문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봄, 도쿄의 현대적 건축디자인과 풍부한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여러 복합 문화시설을 직접 찾아, 쇼핑 중심지에서 벗어난 문화예술의 심을 경험해보기를 바란다.

종이로 그리는



언제나

누구든

달력그림

2025

모두의 아뜰리에

2.14. - 4.26.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1층, 월-토 09:00-18:00



자세히 보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COULD MAKE

명곡의 뒀안길
 브람스와 말러, 호숫가의 두남자
 낮말은 새가 듣고 날말은 시가 줌는다
 '꼭'에서 '뜻'으로—덜익었기에 더익을수 있다는 희망
 국악 칼럼이라기엔 속스럽지만
 다 이해하면 오히려 재미없는, 국악
 멈추면 보이는 것들
 국립극장을 지키는 자유로운 위엄

브람스와 말러, 호숫가의 두 남자

유윤중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2번 4악장. 시작부터 활기로 넘쳐 오르던 전체 합주가 잦아들고, 저미는 듯한 현의 반주 위에 목관이 나직한 음형 音形을 연주한다. 라-미-파-도-미-시, 세 음 떨어졌다가 한 음 올라가고, 다시 세 음 떨어졌다가 한 음 올라가기를 반복한다.

‘음? 이런 순간이 다른 작곡가의 작품에 있는데?’ 말러 교향곡 1번 1악장 시작부가 그렇다. 현의 미세한 반주 위에 목관이 세 음 떨어졌다가 한 음 올라가는 음형을 반복한다. 이 부분만을 떼어놓고 들려준다면, 혼동하는 사람도 많을지 모른다.

브람스와 말러는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자기 세대를 대표하는 작곡 거장이었다. 브람스의 교향곡 2번은 1877년, 말러의 교향곡 1번은 그로부터 11년 뒤인 1888년에 나왔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작품을 알고 있었을까? 또는,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기는 했을까?

물론,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890년, 말러 교향곡 1번이 세상에 나오고 2년 뒤였다. 당시 30세의 말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페라극장 감독이었고, 브람스는 부다페스트 음악원 교수들의 초청으로 이 도시를 방문했다. 교수들은 “천재 지휘자가 오늘 밤 모차르트 ‘돈 조반니’를 지휘합니다. 보러 가실까요?”라고 제안했다. 평범한 지휘자들의 무대를 못 견뎠던 브람스는 강권에 못 이겨 박스석에 들어간 뒤 뒷줄 소파에 몸을 눕혔다. 서곡이 끝나자 브람스는 무대가 잘 보이는 앞줄로 자리를 옮겼고, 1막이 끝나자 달려 나가 말러를 껴안았다.

6년 뒤인 1896년, 말러는 오스트리아 제국을 넘어 전 유럽에서 음악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빈 궁정오페라(현 빈 국립오페라) 감독직을 노리고 있었다. 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원로 브람스가 한마디만 거들어준다면 큰 도움이 될 일이었다.

말러는 잘츠부르크 근교 호수 지대인 잘츠카머구트 지역의 중심 도시인 바트 이슬에 있는 브람스의 집으로 찾아갔다. 두 사람은 호수로 유입되는 트라운 강가를 걸으며 얘기를 나눴다. 브람스는 바그너의 영향 속에 있는 당대의 혁신적인 음악에 대해 계속해서 따가운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 점을 상기하면 그는 말러가 작곡한 음악을 접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말러야말로 당시 작곡계에서 가장 대담한 혁신가였기 때문이다. 또는 일부러

도발한 것일까?

그때 강물을 바라보던 말러가 브람스의 팔을 잡고 외쳤다. “박사님, 보세요!” “무슨 일인가?” 놀란 브람스가 묻자 말러는 말했다. “저기 마지막 물결이 가고 있어요!”

브람스는 그 말을 즉각 이해했다. 모든 물결엔 다음이 따르는 것이지 자신의 세대만 진실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도 주저 없이 답했다. “좋은 얘기일세.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물결이 바다로 들어갈지, 늪에서 멈출지 모른다는 것이지.”

말러는 브람스의 집을 나서면서 창문으로 브람스의 모습을 한 번 더 훑어 보았다. 혼자 사는 브람스는 소시지와 빵을 오븐에 데워 식탁으로 나르고 있었고, 얼굴은 황달기가 뚜렷한 노란 빛을 띠고 있었다. 그날 준 것인지, 나중에 우편으로 보냈는지 모르지만 이즈음 말러는 교향곡 2번 ‘부활’ 악보를 브람스에게 증정했다. 브람스는 특히 기괴함과 번쩍이는 빛이 공존하는 2악장을 마음에 들어 하며 ‘천재의 작품’이라고 평했다. “나는 지금까지 반란군(음악계의 보수파와 경향을 달리하는 신세대 작곡가들)의 수장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가 말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브람스는 말러를 만난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다.

브람스와 말러가 건넌 트라운강은 근처의 트라운 호수로 흘러 들어간다. 브람스가



©GUSTAVMAHLERFESTIVAL/STENBACH

살던 바트 이슬은 수많은 호수와 산이 산재한 지역의 중심지였다. 브람스와 말러가 공통으로 사랑한 대상이 있다. 그것은 호수였다.

말러 교향곡 1번과 닮은 부분이 있는 브람스 교향곡 2번은 그의 여름 휴가지인 오스트리아 남부 비르터 호숫가의 작은 도시 피르차흐에서 작곡됐다. 비르터 호수는 동서로 기다란 모습을 한 호수다. 피르차흐는 이 긴 호수의 중간 북쪽에 있다. 브람스는 특히 이곳에서 호수 서쪽으로 황혼이 지는 모습을 사랑했다고 한다. 1악장 서두의 느긋한 부분이 무엇보다 석양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에 언급한 4악장 중간의 고요한 부분도 황혼을 연상시킨다.

이 호수의 남동쪽, 사람이 거의 없어 마을이라고 하기는 어색하지만 마이어니히라고 하는 지역의 호숫가에 말러의 ‘여름 작곡 별장’이 있다. 말러는 빈 궁정오페라 감독으로 재직하던 1900년부터 1907년까지 오페라가 공연되지 않는 여름마다 이곳에 와서 작곡에 몰두했다. 호숫가에는 가족이 지내는 집이 있고, 여기서 오솔길을 따라 언덕으로 걸어 올라가면 작은 피아노와 책상이 놓인 한 칸짜리 작은 오두막이 있다. 이곳이 말러의 작업실이다.

말러는 이곳에 작업실을 마련하기 전에도 호숫가 작업실이 있었다. 1893~1896년 사용한 아터 호숫가의 오두막이다. 아터 호수는 그가 브람스를 만난 바트 이슬에서도 도보로 방문이 가능한 거리다. 반대 방향으로 그만큼을 걸어가면 관광 명소로 유명한 호숫가 마을 할슈타트와 할슈타트 호수가 나온다.

필자는 20여 년 전 4월 마지막 날 할슈타트를 처음 찾았다. 여행 시즌이 아니어서인지 마주치는 관광객은 없다시피 했고, 호수에 면한 널찍한 방을 잡았다. 새벽, 머릿속에서 어딘가가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

깊은 잠에서 차츰 의식이 깨어난 것은 호숫가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 때문이었다. 어디선가 ‘쿵’ 하는 대포 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멀리서 트럼펫의 광파르가 이어졌다. 광파르는 점차 가까이 다가왔다. 그 모든 것이 말러 교향곡 1번 시작 부분과 일치하는 소리의 정경이었다. 이 악장 첫 마디부터 이어지는 현의 높은 소리는 새벽이면 외부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사람이 느끼는 ‘짱-’ 하는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모방했다고 한다.

대포와 광파르는 무엇이었을까. 그날은 세계 근로자의 날이었다. 이날을 축하하는 밴드의 행진이 멀리서부터 마을로 다가와 마침내 내가 머무는 숙소 앞을 지나갔다. 말러도 똑같은 소리의 풍경을 접한 일이 있을까. 그 모든 것은 단지 우연이었을까.

두 작곡가의 교향곡이 궁금하다면
롯데와 함께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합동연주회 KBS교향악단×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3월 3일 오후 7시 30분 | 롯데콘서트홀
지휘 정명훈, 피아노 선우예권·이기라시 카오루코,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10번,
말러 교향곡 1번

KBS교향악단×정명훈의 브람스 I, II

3월 14일 오후 8시 | 롯데콘서트홀
지휘 정명훈, 브람스 교향곡 1·2번

‘푹’에서 ‘푹’으로 —덜 익었기에 더 익을 수 있다는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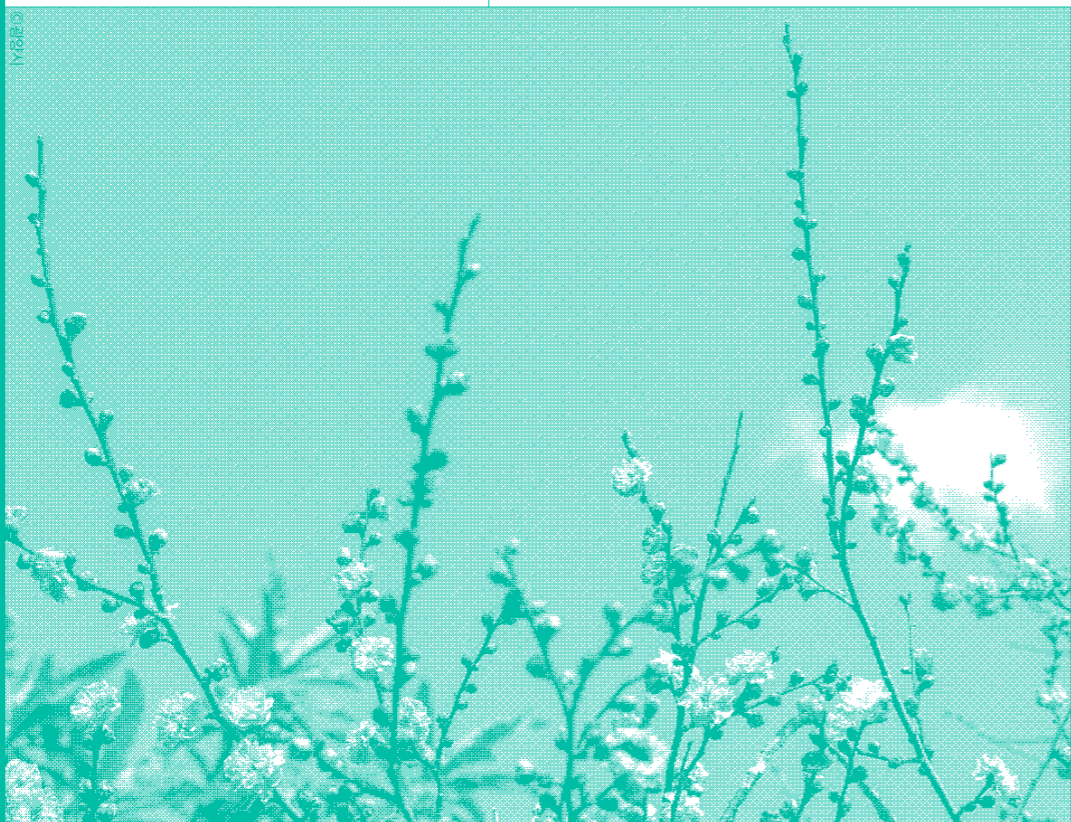
오은 시인

겨울이 ‘푹’과 가까운 계절이라면 봄은 ‘푹’과 친밀한 계절이다. 겨울에 바깥을 나가면 매서운 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하고자 고개를 푹 숙이고 걷게 된다. 푹푹 내리는 함박눈과 그것을 나르는 칼바람이 옷소매와 옷자락 사이를 파고들 때면 얼른 집에 가서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오른다.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듯 노곤함이 물려든다. 이불로 온몸을 푹 감싼 채 누워 있다가 어느새 푹 잠들어버리기 일쑤다.

호기롭게 이한치한(以寒治寒)을 외치며 한겨울에 아이스크림을 푹 떠먹는 사람을 보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용기인가 싶기도 하다. 뜨거운 국밥을 한순간 가득 푹 떠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면 아까 내신 한숨이 푹배기로 옮겨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눈발에 푹푹 빠지는 날들 한가운데서 기운이 푹푹 떨어지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동장군의 무서운 기세에 눌러 푹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날이 어서 푹해지기를 속절없이 기다린다.

그렇게 어렵게 맞이한 봄이다. 주변에 보이는 온갖 것들이 푹푹하다. 사방이 연두로, 연초록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다 자란 몸이 더 자랄 수 있을 것만 같다. 거리에서 봄기운을 감지했을 때 푹! 하고 튀어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길이 없다. 다들 종종거리며 잘도 걸어 다닌다. ‘푹’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영어단어 ‘put’과 ‘foot’이 떠오른다. ‘put’은 주로 놓는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사람 앞에 놓여 어떤 감정을 겪게 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봄이 가져다주는 여러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면, 또 주변에 봄을 타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봄이 우리를 어딘가로 이끄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봄에 부지런히 봄나들이와 꽃구경을 갈 때 우리에게 낯을 뜻하는 ‘foot’이 필요하다. 길에 두는 마음처럼 푹푹한 게 또 없다. 푹고추를 된장에 푹 찍어 먹을 때처럼 ‘푹’과 ‘푹’이 만나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한다. 그럴 때



‘푹’과 ‘푹’의 사이는 꼭 겨울과 봄 사이에 찾아오는 환절기 같다.

‘푹’은 흔히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인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완전히 익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목이다. “봄철에 새로 난 나무나 풀의 연한 싹으로 만든 나물”을 가리켜 ‘푹나물’이라고 하고 “덜 익은 과일”을 가리켜 ‘푹과일’ 혹은 ‘푹과실’이라고 부른다. 푹나물과 푹과일에서는 으레 “싱그럽고 질지 아니한 향기”인 ‘푹향기’가 나게 마련이다. 푹향기는 싱그럽고 질지 않기에 자꾸만 코를 킁킁거리게 한다. ‘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의 상태를 영원하게 하고 종종걸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게 만드는 말이다.

“각지 속에 들어 있어 아직 덜 익은 콩”은 ‘푹콩’이고 “덜 익은 곡식”은 ‘푹곡’이나 ‘푹곡식’이라고 일컫는다. “그해에 새로 익은 곡식, 과일, 나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은 ‘푹것’이다. 푹것은 “생풀이나 생잎으로 만든, 충분히 썩지 않은 거름”인 ‘푹거름’의 힘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다. 한편, “어른이 되면서 처음으로 나는 수염”은 ‘푹수염’이고 “바둑이나 장기 따위에서 서투른 수”를 일컬어 ‘푹수’라고 한다. 실력이 무르익게 되면 푹수를 두던 시절을 떠올리며 자기도 모르게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릴지도 모른다.

‘푹’은 일부 명사 앞에서 “‘미숙한’, ‘깊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이기도 한다. 과일이나 곡물처럼, 감정이나 숨씨 또한 익는 것이니 말이다. “어설픈 내는 힘”은 ‘푹심’이라고 하고 “익숙하지 못한 숨씨”는 ‘푹숨씨’라고 불린다. “아직 깊지 못한 정”을 가리켜 ‘푹정’이라고 하는데, 호감과 사랑 사이의 어떤 감정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다는 게 놀랍다. “서로 낮이나 익힐 정도로 얹. 또는 그 정도의 낮”은 ‘푹낮’ 혹은 ‘푹면목’이라고 하며, 이들이 나누는 인사는 아무래도 겸연쩍음을

동반한 ‘푹인사’일 가능성이 크다. 처음의 어색함을 극복하고 친해지게 되면 언젠가 상대의 민낯이나 진면목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푹사랑’이 있다. 푹사랑은 흔히 “어려서 깊이를 모르는 사랑”이란 뜻으로 쓰이지만, 이 단어는 “정이 덜 들고 안정성이 없는 들뜬 사랑”을 가리키기도 한다. 푹사랑의 두 번째 뜻은 거의 모든 사랑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될 때 처음에는 서로의 차이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 차이는 불안뿐 아니라 동시에 설렘도 선사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사랑에 빠진 사람이 늘 약간은 들떠 있는 까닭이다. 처음에 상대방에게 끌리는 데에는 나와 다르다는 점이 깊이 작용한다. 다른 덕분에 매력적이고, 다름 때문에 두렵다. 그 불안을 기꺼이 떠안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사랑은 점차 무르익을 것이다.

‘푹’의 반대말은 무엇일지 곰곰 생각한다. 아마도 ‘농’이 아닐까 싶다. ‘농’은 명사 앞에 붙어 “‘진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질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이고 동사 앞에 붙어 “‘푹’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기능한다. 농염산, 농적색, 농익다 등으로 활용되는데, 이는 덜 익음의 반대편에는 푹 익음이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앞서 보았듯 ‘푹’과 ‘푹’은 때때로 만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대쪽에서 있는 셈이다. ‘농’의 상태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푹’의 시절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때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새삼 깨닫기도 하면서, 익는 일이야말로 평생에 걸쳐 달성해야 하는 과업임을 생생하게 느끼기도 하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은 늘 ‘푹’과 가까운 수밖에 없다. ‘푹’이라는 말 속에는 처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서툴고 미숙하지만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덜 익었기에 더 익을 수 있다는 희망이 다 담겨 있다.

다 이해하면 오히려 재미없는, 국악

송현민 음악평론가

유튜브에서 또 한 번 난리가 났다. 이제 걸작은 공연장보다 유튜브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다.

국가유산청이 2월 7일 공개한 ‘탈, 춤으로 잇다-봉산탈춤×아이키’ 영상이 화제다. 국가유산청 유튜브 채널의 조회 수로 보면 3년 전 올라온 ‘서대문형무소 리얼 체험기’가 35만 회를 기록하며 1위다. 그런데 ‘봉산탈춤×아이키’는 공개된 지 10일 만에 조회수 14만 회를 돌파했다. 이 영상을 기획·제작한 국가유산청은 유형과 무형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국립 기관이다. 과거 ‘인간문화재’나 ‘무형문화재’로, 오늘날에는 ‘국가무형유산’으로 불리는 전통예술이여기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만큼이나 ‘홍보’도 신경 쓰는 곳이다. 사라져가는 전통예술의 홍보도 보호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봉산탈춤×아이키’로 전통예술의 하나인 탈춤이 제대로 홍보됐다. 이처럼 홍보와 보호를 함께 하는 것을 (말도 안 되겠지만) ‘홍-보-호’ 전략이라 부르고 싶다.



국가유산청
‘탈, 춤으로 잇다-
봉산탈춤×아이키’

4년 전 ‘범 내려온다’를 떠올리며

아이키는 안무가이자 댄서다. 2021년 댄스 크루 ‘HOOK’의 리더로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나와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파격적인 협업을 할 줄은 몰랐다. 댄글 창도 난리다. “세금은 이렇게 쓰세요 제발”, “기획하신 분도 능력자이신 듯”, “이 집이 예산을 그렇게 이쁘게 쓴다며?”라며 국가유산청을 칭찬하기도 한다. 댄글만 봐도 오늘의 관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다. 일명 ‘댄글 인류학’이라고 해야 할까.

전통예술이나 국악이 춤과 만나 파격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발표된 ‘범 내려온다’ 역시 대표적이다. 이날치 밴드는 판소리 수궁가의 한 대목에 강력한 비트를 심어 넣었다. 잘 들어보면 두 대의 베이스기타와 세트 드럼이 현란한 방점을 찍는다. 선율과 화성을 담당하는 기타는 없다. 그렇다보니 박자가 도드라진 ‘범 내려온다’는 듣는 이의 리듬을 이끌어내고, 이를 춤으로 진화시킨다. 이에 맞춰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가 어떤 춤을 취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줬다. 사람들은 음악과 춤에 흠뻑 빠져 들었다.

하지만 두 영상의 차이점은 분명하다. ‘범 내려온다’는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는 춤이기에 챌린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봉산탈춤×아이키’는 현란하다. 아이키만 출수 있는 춤이다. 그 춤을 잘못 따라 했다가는 뼈마디에 ‘탈’이 생길지도 모르니, ‘탈-춤’이라 할 수도 있겠다.

‘부분’적으로 다가갈 때 빛나는 전통예술

생각해보면 전통예술이 가장 빛날 때는 다른 예술에게 ‘부분’을 빌려줄 때다.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 것을 바로 알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기보다 다른 예술과 뒤섞여 전통예술의 특색을 ‘잠시 잠깐’ 보여주는 것이 더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좋은 것 일색-色’보다는 ‘좋은 법한 것들의 다색多色’이 각광받는 시대라는 것이다. 컬래버레이션(협업)은 이러한 다색의 요소를 모아 합을 이루는 방식이다. 기존 것들을 해체해 재배치하는 ‘유有에서 또 다른 유有를 낳는 방식’이 무無에서 유有를 낳는 창조보다 더 각광받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봉산탈춤×아이키’ 영상도 봉산탈춤의 ‘부분’들이 아이키의 캐릭터와 맞물린다. 물론 봉산탈춤을 모두 보여주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탈춤은 춤은 물론, 노래 연극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기의 깃발이 높이 오른 국립창극단도 마찬가지다. ‘창극’이란

판소리를 ‘부분화’한 다음 서양의 연극과 만나게 해 발전시킨 장르다. 원래 1인극으로 태어난 판소리 속 캐릭터들을 서양극처럼 배역으로 나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창극단의 간판스타 격 단원들은 판소리를 전공했지만, 배역과 장면에 따라 자신의 전공을 부분적으로 축소하고, 서양식 발성과 연기를 펼치기도 한다. 1인 다색多色의 연출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깊이’있게 ‘이해’해야 한다는 착각

그렇다보니 오늘날 국악은 어느 작품의 ‘부분’이나 ‘요소’로 참가해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 안에서 국악이 지닌 이질감은 ‘전체’를 뒤집는 인상적인 ‘부분’이 된다. 생소한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를 놓고 부정적인 시선도 많다.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이름을 달고, 처음 보는 국악 공연 앞에서 줄음의 신과 겨뤄 이긴 자는 거의 없다.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과거의 국악은 이러한 자세 때문에 손해 본 것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다 좋을 수는 없다. 그런데도 다 좋다고 생각하고, 다 보여줘야 하고, 다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 과거에 생각한 국악 전승에 대한 대부분의 자세였다. 지금처럼 ‘부분’으로 합류(협업)하거나, 여러 요소가



모인 작품의 ‘조각’이 되는 것은 국악의 명맥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하던 때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오히려 전체를 고수하기보다 용도가 변경되거나, 부분으로 합류해 빛날 때에 국악은 그토록 외친 ‘대중 속으로!’라는 강령에 힘이 붙는다. ‘봉산탈춤×아이키’가 좋은 예다.

예전에 어느 소리꾼과 함께 작업한 적이 있었다. 노래의 엔진에 신나는 흥의 부스터를 장착한 그에게, 나는 온전파로

다가갔다. 민요의 가사는 한문투성이다. 그래서 가사는 물론이고 뜻까지 이해할 수 있는 해설식 자막을 띄우자고 했다. 그런 그가 말했다. “너 팝송 들을 때 가사와 뜻까지 다 이해하고 들어?” 그의 말이 맞았다. 그날 관객들은 그의 노래(와 가사)가 찬란한 무형유산인지 방구인지 모른 채 마냥 즐기다가 갔다. 결론적으로 국악의 ‘전체’를 보여주기보다 어느 ‘부분’을 보여줄지, 그 고민이 앞서야 하는 시대다.

국립극장을 지키는 자유로운 위엄

조상인 백상미술정책연구소장, 『살아남은 그림들』 저자

역사가 길면 쌓이는 게 많다. 연륜과 명성, 여러 사연과 함께 차곡차곡 소장품도 모이기 마련이다. 예술기관이면 더욱 자연스럽게 공용 공간에 작품이 놓인다. 무심하면 스쳐 지나고 말겠지만, 잠시 멈추고 관심을 가진다면 그림들이 새삼 다시 보인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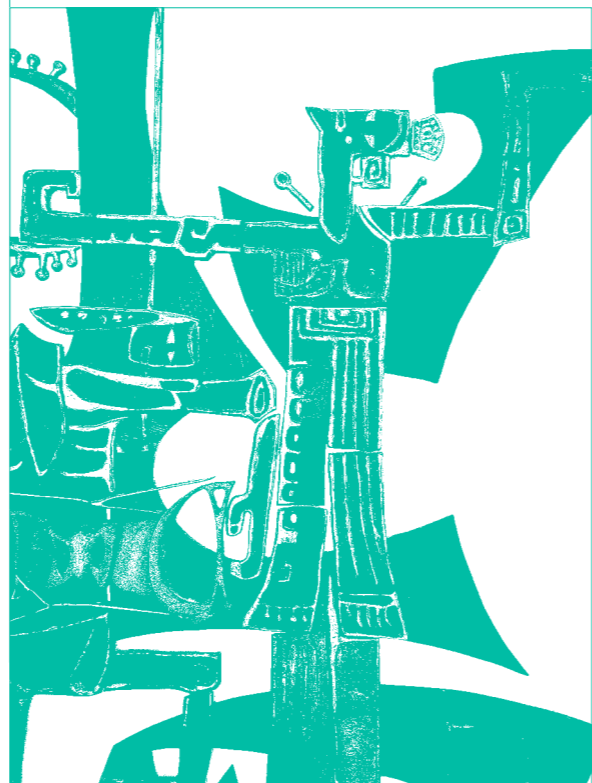
75년 전통의 국립극장에서도 참으로 많은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인기 아이돌 그룹 세븐틴에게 ‘음악의 신’이 있다면 국립극장에는 ‘연극의 신’이 있다. 해오름극장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 벽에 걸린 이세득 1921-2001의 부조 작품이다. 폭 263cm, 높이 302cm에 달하는 대작이 벽에 짜맞춘 듯하다. 1층에서 걸어 올라가며 만난다면 마치 신전을 오르는 것 같은 압도적 기운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마주한다면 의외의 장소에서 대면하는 경건함을 느낄 수 있다. 금색과 검정, 나뭇결이 생생하게 보이는 짙은 붉은색의 조화가 강렬하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를 상상하게 만드는 작품 속에 인물 두 명이 등장한다. 오른쪽의 키 큰 사람은 하늘로 치켜든 얼굴, 쪽 뺨은 두 팔이 승리의 여신인 양 당당하다. 머리 위에는 화관을 쓰고, 뒤통수에는 족두리를 했으며, 볼에는 연지곤지를 찍었다. 가슴 한쪽을 다 드러낸 의상이 몹시도 전위적이다. 몸은 앞을 향했으나 얼굴은 옆모습인 반면, 눈은 정면을 향한다. 팔다리는 골절 수준으로 이리저리 꺾여 있는데, 이는 1950년대 전 세계를 풍미한 큐비즘의 영향이다.

여성 무용수 왼쪽에는 신명 나게 장구 치는 사내가 자리를 잡았다. 인체를 유려한 곡선으로 표현하는 대신 딱딱하게 각진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신체와 같은 위엄을 갖게 됐다. 잘린 듯한 팔꿈치, 갈퀴 같은 손가락, 꺾어 들어 올린 한쪽 다리 등 경직된 분위기에 동세를 넣어 경쾌한 위엄이 완성됐다. 처음 제목은 〈희열 喜悅〉이었는데, 1973년 국립극장이 이곳 남산으로 이전할 때 이름을 〈연극의 신〉으로 변경했다.

작가 이세득은 192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함흥에서 ‘홍아여관’을 운영하던 부친이 그림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그 영향이 이세득을 화가로 키웠다. 일본 유학길에 올랐고 도쿄제국미술학교(테이코쿠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지금은 ‘무사시노미술대학’이라 불리는 이곳은 이쾌대와 장욱진, 조각가 권진규 등 근대미술의 주요 작가를 배출한 명문 학교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는 국방부 소속의 종군 화가로 활동했다. 1953년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특선과 장관상을 받으며 이름을 떨쳤다. 감각 있는 엘리트 화가로 성장했다.

젊은 이세득은 1954년 지금의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전신인 반도호텔의 벽화를 제작했다. 달항아리부터 향로와 촛대, 소반과



주자, 항아리 등 한국의 기물을 자유롭게 배치한 반도호텔 다방을 위한 벽화는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미를 풍겨 외국인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다.

작가는 1958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며 국제적인 미술 경향인 모더니즘을 받아들였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대략 100년을 풍미한 모더니즘 미술이란, 전통적인 형식과 기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현 방식의 탐구를 말한다. 유학에서 돌아온 이세득은 이를 실천했고, 한국 현대미술의 전환점을 마련한 작가로 평가된다. 이 시기 그는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국제적 조형미로 표현하려는 데 집중했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문양, 단청의 색, 수막새와 기와 형태 등 전통적 요소를 추상화에 도입했다. 기법에서는 입체주의적 시각에서 대상을 선과 면의 형태로 단순하고 납작하게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극의 신〉도 그중 하나다.

국립극장은 1950년 4월 처음 문을 열었으나 6.25 전쟁으로 부산·대구로 옮겨 다녔다. 1957년 6월 귀경해 지금의 명동예술극장 자리에 터를 잡았다. 이곳에서 극장 전용 건물로 새롭게 단장하고 재개관한 것은 1962년 3월. 당대 최고 한국화가인 청전 이상범, 의재 허백련을 필두로 김환기·이세득·김영주·정창섭 등 그 시절 서울대학교·홍익대학교 교수이며 국제 비엔날레에 참가할 정도로 ‘잘 나가던’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이 줄지어 걸렸다. 물론 그중 대표작은 단연 이세득의 벽화였다.

지금의 남산 국립극장 시대는 1973년 10월 17일 막을 올렸다. 이세득은 또 한 번 활약했다. 현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로비 층 한가운데 무지개색 유리벽돌 부조가 바로 이세득의 작품이다. 해오름극장 앞 문화광장에서 걸어 들어온 방문객들이 처음 만나는 극장의 얼굴이기도 하다. 맨 위 진붉은 색이 아래로 갈수록 점점 맑아지다 노란빛을 내뿜고, 이내 에메랄드·사파이어·자수정을 떠올리게

하는 초록·파랑·보라색이 펼쳐진다. 무지개색 벽돌 두 개 층이 포개진 이 작품은 제목 또한 ‘레인보우’. 현대미술에 관심 좀 있는 사람이라면 프랑스 작가 장 미셸 오토니엘이나 벨기에 예술가 안 베로니카 안선스의 작품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세득이 앞섰다. 유리를 건축물 벽면 장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당시로서 획기적 시도였다. 작가가 1962년 공군사관학교 교회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작한 적 있는데, 이 경험이 유리벽돌 작업으로 이어진 듯하다. 국내에서는 재료를 구할 수 없어 일본의 공방에서 특별하게 유리벽돌을 제작했다. 국립극장 건물 자체가 화강암 질감으로 육중한 느낌이 강한데, 입구 정면에서 마주하는 이 작품 덕에 산뜻함이 더해진다. 유리가 뿜어내는 빛은 환상적이고, 색은 조화롭다. 극장이 보여주는 연극·무용 같은 예술의 역할도 환상을 그려내며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 아니겠는가. 벽돌 표면이 아롱대는 효과는 전통 나전 螺鈿을 떠올리게 하는데, 현대적 표현에 한국적 미감을 반드시 넣고자 한 작가의 의지가 읽힌다.

국립극장 이전 개관에 맞춰 제작된 〈레인보우〉는 원래 6,446개의 유리벽돌을 59줄로 쌓아 올린 것이었는데, 지난 2017년 해오름극장 리모델링으로 벽면에서 해체됐다. 이후 문화유산 복원 전문가의 자문과 유족의 동의를 거쳐 복원됐다. 원래 틀을 유지하면서 극장 공간에 맞추다보니 3,373개의 유리벽돌을 52줄로 재배치했고, 2022년 6월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해오름극장 1층 로비에 걸린 폭 630cm, 높이 292cm의 작품 2점 1세트의 〈환희〉는 화려한 색 속에 장구춤·부채춤·농악무·무당춤 등 전통무용을 담고 있다. 마주 보는 자리에 걸린 〈십장생도〉는 고분벽화 같은 독특한 질감 속에 산·돌·구름·소나무·거북·학·사슴 등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들을 품고 있다. 우리 문화와 국립극장의 활약이 오래가고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겼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컨트리뷰터

REMINISCENCE

혜화역 4번 출구 앞 서울연극센터에서 재단의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십여 년이 지난 후 옛 동숭아트센터 자리엔 서울문화재단 2층사인 대학로센터가 들어섰고, 오는 20일에는 연극인을 위한 종합지원거점이 될 서울연극창작센터가 문을 여네요. 술한 변화를 거쳐온 대학로에 봄이 오려나 봅니다. 과거 대학로 연극 부흥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EPILOGUE

커다란 '건물'이 연극인을 위한 멋진 '공간'이 되기까지, 긴 시간 치열하게 고민했을 애정하는 K 주임님과 서울연극창작센터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을 밝힐 좋은 작품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공간이기를 응원합니다.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UNDERLINE

"우아함은 잘 조정된 매끄러운 움직임 혹은 겸손하고 관대한 태도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둘은 대개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움직임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 그들의 편안함은 느긋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바로 그런 점에 끌린다."(사라카우프먼, '우아함의 기술', 노상미역, 2017)

2월의 첫날에 읽은 문장을 되새기며 3월로 향합니다. 올해는 조금 더 우아한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김태희 디자인이끼 에디터

EPILOGUE

표지와 내지 디자인에서 이전 호와 다른 점 찾아보기!
손민지 디자인이끼 아트디렉터

주요 배포처

-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노들섬
-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양천/용산
- 서울문화재단 본관/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 서소문본관/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개관 무한의 언어로 내일을 비추다 페스티벌

2025. 3. 20. (목) - 4. 26. (토)

SEOUL MY SOUL

무한언어재단

서울연극광학센터

극단 수수파보리
통속소설이 더 어때서?!
25. 3. 20.(목)-22.(토)

극단 하땅세
오브제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
25. 4. 3.(목)-5.(토)

창작집단 오늘도 봄
예술적 예술
25. 3. 27.(목)-29.(토)

글과무대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25. 4. 17.(목)-19.(토)



극단 코너스톤
맹
25. 4. 24.(목)-26.(토)

서울연극창작센터